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20호 【루계 제25363호】 주체105(2016)년 8월 7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총돌격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7월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계속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총정의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00일전투가 시작된 첫달부터 황철로동계급은 과감한 생산돌격전을 벌려 지난 7월에 주체철생산계획은 100%, 강철생산계획은 100.3%, 압연강재생산계획은 100.8%로 수행한 기세로 8월에 들어와서도 련일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황철로동계급이 오늘의 보람찬 진군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위원회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전투현장에 들어가 혁입식정치사상사업을 들이대면서 생산자대중을 위훈창조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원료,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와 함께 산소열법용광로와 초고전력전기로, 압연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직장, 작업반들에서 매일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총정의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생산현장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있다.

직장, 작업반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주체철생산을 맡고있는 용광로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산소열법용광로의 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주체철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선행공정을 지켜선 원료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쇠물생산을 최대로 늘일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들을 적극 만아들여 련일 실적을 확대해나가고있다. 로체작업반의 용해공들은 용해시간을 단축하면서 차지당 쇠물량을 종전보다 늘이고있다.

강철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앞선 기술을 적극 만아들여 제강시간을 줄이면서 매일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려명거리건설장에 보낼 압연강재생산을 맡은 청년선재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환강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직장에서는 환강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압연시간을 줄여 매일 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특파기자 김 천 일

채취기계공업국아래 공장, 기업소들에서

채취기계공업국에서 7월에 지표별전투과제를 끝내고 월전투목표를 112.6%로 완수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국일군들은 200일전투기간 전동기, 뽐프, 감속기를 비롯한 지표별계획을 무조건 완수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가 열린 올해를 빛내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들은 산하 공장, 기업소들에서 지표별에 따르는 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면서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안주뽐프공장의 로동계급이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발휘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과감한 생산돌격전을 벌려 지난 7월 30일까지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한데 이어 뽐프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곳 로동계급은 200일전투기간 누구나 만리마선구자가 될 불타는 열의안고 힘찬 생산돌격전을 벌려 지표별뽐프과제를 넘쳐 수행한데 이어 려명거리와 보건산소공장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보내줄 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진천착암기공장의 로동계급은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고있다.

함경북도림업관리국아래 림산,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 통나무, 동발나무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높이 세운 충정의 200일전투의 첫달 통나무, 동발나무생산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한데 이어 7월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관리국아래 림산,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도림업관리국 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벌목공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관리국당책임일군들은 비롯한 일군들은 현지에 나가 벌목공들과 함께 나무도 베고 사이사이 월전투목표를 103%로 넘쳐 수행하였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지난 기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대형설비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대상설비생산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월전투목표를 빛나게 완수하였다.

신의주광산기계공장, 동림광산기계공장 로동계급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로 뚫고나감으로써 전차, 광차, 감속기를 비롯한 지표별생산과제를 100%이상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장산전기공장과 동림전기공장 로동계급도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힘찬 생산돌격전을 벌림으로써 맡겨진 전동기생산과제를 150%로 넘쳐 수행하였다.

회령탄광기계공장, 평양탄광기계공장 로동계급은 오늘의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타는 열의밑에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지표별전투과제를 빛나게 완수하였다.

본사기자 리 영 민

함경북도림업관리국아래 림산,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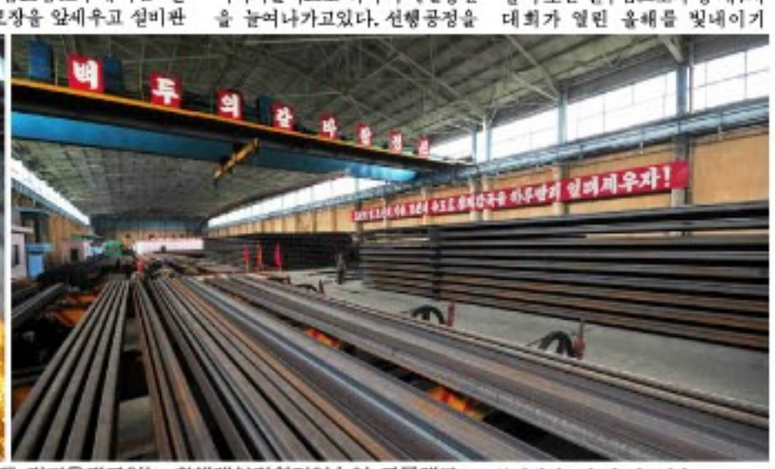
높이 세운 7월전투목표를 점령하는 자랑찬 성과를 달성하였다.

관리국안의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는 그 기세로 동발나무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온성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자동차들에 대용연료를 리용하여 많은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동발나무생산계획을 매일 15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경성, 명간, 회령, 경흥갱목생산사업소들 비롯한 관리국아래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는 장마철기간 채벌과 사이나르기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도로관리, 설비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동발나무생산실적을 부쩍 올리고있다.

특파기자 리 은 남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 힘있게 추진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장에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총정의 200일전투의 불길속에 로반, 철다리, 소구조물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고 차갈화장과 피복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엄마전부터는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철도성련대 돌격대원들이 전주, 콩크리트침목 현지운반을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철길건설지휘부에서는 로반과 철다리, 소구조물공사 등을 다그쳐 올해중에 매루놓기를 시작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빠기있게 해나가고있다.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돌격대원들은 때두의 혁명정신으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많은 대상공사들에서 혁혁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돌격대원들의 투쟁에 자기들의 마음을 따라세우며 철도성아래 생산기지들에서는 콩크리트침목, 전주, 철길고착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철도운수부문의 수송전사들이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에 필요한 화물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철도국들에서 화차들의 회귀일수를 줄이고 화물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철길건설에 필요한 물동을 제때에 실어나르고있다.

우리의 미더운 철도로동계급이 생산한 콩크리트침목과 전주, 철길고착품을 실은 화물렬차들이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련속 위연청년역에 도착하고있다.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철도성련대에서는 전주, 콩크리트침목을 현지에 수송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면밀하게, 기동적으로 짜고들고있다.

철도성련대 돌격대원들은 렬차에 만적재한 화물을 부리우기 위한 치렬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철도성 운수기동대의 수송전사들은 전선에 한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중량물을 만끌림차에 실어 수십리 떨어진 현장까지 수송하는 전투를 긴장하게 벌리고있다. 련대에서는 수백대의 전주와 1만 수천정의 콩크리트침목을 보관지구 철길건설장에 수송하면서 그 성과를 계속 확대하여 일단 매루놓기가 시작되면 단숨에 해제낄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당의 부름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충만된 돌격대원들은 삼복철의 무더위도 무릅쓰고 불리한 작업조건을 주동적으로 뚫고나가면서 매일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특파기자 전 철 주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연구성과 확대

|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에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전반적인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첨단돌파의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여야 합니다.》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연구집단들이 충정의 200일전투의 날과 달을 헤아리면서 이어가며 나라의 경공업발전을 추동하고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에서는 나라의 경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수많은 연구과제수행을 충정의 200일전투목표로 내세우고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짜고들고있다.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타는 일념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대학의 연구집단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과학연구성과들이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대학의 한 연구집단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평양방직기계공장의 기술력량과 힘을 합쳐 낮과 밤을 이어가며 전투를 벌려 국내산 테트론인견실을 리용하여 가방용천을 짤수 있게 유연창대직기를 개조하는 한편 가방용천을 염색하기 위한 고온고압로라염색기를 설계제작하여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린데 이어 여러대의 고온고압로라염색기를 제작하여 여러 방직공장들에 도입하고 지금 그 정상가동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평양체육기자재공장현대화사업에 동원된 대학의 연구집단은 국산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여러달에 걸치는 줄기찬 전투를 벌려 공내피생산과 권투장갑생산, 유술복생산 등을 위한 기술준비를 완료하고 바트민톤공생산용오리깃털의 표백, 각종 그물염색 등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 지금 공불임용접착제의 질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고있다.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현대화사업에 참가한 대학의 연구집단은 여러가지 사탕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고 빵, 과자, 떡, 단물을 비롯한 많은 제품의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과제서작성과 생산기술지도를 책임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고있다.

한편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현대화사업에 참가하여 원료준비로부터 포장에 이르는 무인화된 콩신젖생산공정을 새롭게 확립하고 남새가루를 비롯한 10여종의 새 제품을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한 대학의 연구집단은 현재 여러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해나가고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류경김치공장에 통김치생산공정과 짝두기생산공정, 장절임생산공정을 확립한데 이어 양념공급을 자동화하고 생산의 위생안전성을 높이며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연구사업 등을 다그쳐 끝내기 위해 힘찬 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평양화장품공장의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공기졸형머리잡고착제를 비롯하여 질좋은 여러종의 화장품을 만드는데 성공한데 이어 지금 새 화장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이밖에도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에서는 여러 대학들과 협동하여 평양밀가루가공공장에 즉석국수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기 위한 연구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어느 한 남새가공공장에 거점임무우생산공정을 훌륭히 꾸려놓은것을 비롯하여 자랑찬 성과들을 끊임없이 창조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구상을 결사관철해가려는 이곳 대학일군들과 연구사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높은 실력,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다.

이들은 오늘도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안고 세계적인 우리의것을 더 빨리,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과감히 전개해나가며 충정의 200일전투기 복장에 날마다 빛나는 위훈을 새겨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명 훈

대상설비생산에서 집단적혁신 창조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충정의 200일전투에 총궐기해나선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대상설비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유압설비의 질을 높일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술혁신과제와 대상설비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이 중요생산단위들을 맡고 내려가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활발히 벌려 로동자들이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충정의 200일전투목표를 일별, 주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여 유압기계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혁신과제들과 대상설비생산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도록 기술지도를 짜고들고있다.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대상설비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투지휘부를 조직하고 대상설비총조립을 맡은 대형조기직장전투장에 나가 기술자, 기능공들과 기술협의회를 진행하면서 대상설비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타일연마기와 해말고가 높은 곳에서 리용할수 있는 물뽐프를 생산하기 위한 계획을 높이 세우고 모든 단위들에서 매일 맡은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량의 피태바퀴를 생산한 기세드높이 200일전투에서도 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자력자강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면서 새 유압설비개발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하기 위해 애쓰면서 새로운 지표의 굴착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집단에서는 1㎡유압식굴착기기름의 오염도를 낮추고 유압뽐프의 질을 높일수 있는 기술혁신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한데 이어 열처리직장의 소경, 소둔로들에서 열처리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첨단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있다.

이곳 기술집단에서는 채취공업부문에서 요구하는 잠수뽐프들과 각종 유압설비에 들어가는 유압원, 전력공업부문에서 쓰이게 될 대상설비, 산소분리기타빈팽창기를 수요에 따라 생산하기 위한 기술준비사업을 200일전투목표수행의 중요과업으로 내세우고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은 생산의 앞공정을 맡은 신포항주철직장, 주강직장, 단조직장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매일 대상설비소재생산과제를 1.2배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청년직장, 일반기계직장, 정밀가공직장, 유압기구직장, 감속기직장, 시린다직장, 제판직장, 열처리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적극 벌리면서 대상설비부분품가공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대상설비들의 총조립을 맡은 대형조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매일 맡은 설비조립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대상설비들의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있다.

생필분공장에서는 콩분쇄기, 소형콩착유기, 감자칼, 옷걸이 등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면서 200일전투의 낮과 밤을 자랑찬 로력적위훈으로 빛내여가고있다.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충정의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일터마다에서는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으며 생산성과는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높은 수준에서 생산을 정상화

천내리세멘트공장에서

총정의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천내리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세멘트생산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며 매일 맡겨진 계획을 1.2배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충정의 200일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하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석회석분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채굴장관리를 잘하여 매일 많은 량의 석회석을 생산하고있다.

운광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설비들의 관리를 짜고들고 기대에 점통하기 위한 기술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공장적으로 앞서나가는 단위로 이름떨치고있다.

원료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원료배합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해나감으로써 질좋은 세멘트를 생산하고있다.

소성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으로 3호소성로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이곳 로동자들은 3호소성로의 대보수를 짧은 기간에 끝냄으로써 세멘트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세멘트직장과 분탄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로력관리를 짜고들고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 매일 맡겨진 생산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공무직장을 비롯한 보장단위들에서도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설비들의 만가동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공장앞에 맡겨진 세멘트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혈전만리 헤치시며 조국을 찾아주신 우리 수령님 업적 천만년 빛내여가자

백두의 혁명신념과 정신으로 최후승리 떨치리

평양대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는 지금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원쑤들의 악착한 고문속에서도 혁명신념과 정신을 굽히지 않은 녀투사,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는 웨침으로 원쑤들을 전률케 하고 선군혁명의 전렬에서 영생의 삶을 빛내이고있는 최희숙동지.

혁명가의 신념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말하여주는 혁명가극에는 최희숙동지와 관동군사령부 중좌놈과의 이런 대화가 있다.

관동군사령부 중좌: 너의 그 의지력앞에 머리가 숙어진다. 그래 그 신념이라는걸 지키자고 아까운 생을 버리겠는가?

최희숙: 신념없이 백년을 살기보다는
신념을 지키여 하루를 살려
그 하루속에는 영생이 있고
혁명가의 값높은 행복도 있다
어찌 최희숙동지뿐이랴.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에 다진 맹세를 정녕 저버릴수 없기에 신념이냐 배반이냐, 삶이냐 죽음이냐를 가르는 마당에서 서슴없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길을 택한 투사들은 그 얼마였던가.

혁명은 곧 신념이며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게 된다는 혁명의 심원한 철리를 피끓는 심장에 조아박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받들어싸운 혁명의 1세대들모두가 백두의 혁명신념과 정신의 제일제헌자들이였다.

죽을지언정 버릴수 없는 불굴의 혁명신념과 정신, 진정 그것은 조선혁명의 어제와 오늘뿐아니라 최후승리를 이룩해야 할 래일도 우리모두가 영원히 심장속깊이 간직하고 투쟁해나가야 할 백전백승의 원동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은 곧 신념이며 신념이 없으면 혁명가가 될수 없습니다.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할수 있습니다.》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총대를 높이 추켜들었을 때 항일무장투쟁이 언제 승리하게 될지 아직은 누구도 알수 없었으며 또 승리한 후의 그 어떤 탐보같은것이 있은것은 더욱 아니였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 믿고 싸우면 기어이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할수 있다는 굳은 신념과 의지로 항일투사들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엄혹한 시련도 웃으며 헤칠수 있었으며 신념과 배신을 가르는 《41년도비람》도 이겨내며 조국해방의 환희로운 대안에 끝끝내 닿을수 있었다.

언제인가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문헌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시며 혁명은 곧 신념이라고,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다고,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있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의 항일대전사는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이며 수령님의 신념과 의지, 배짱으로 승리해온 력사이다.

신념과 의지에서 우리 수령님을 따를 위인은 없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고난의 행군의 간고성에 대하여서는 력사교과서를 비롯한 여러 도서들과 예술영화의 화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 남패자로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이 행군은 사실상 우리가 상상하고있는것보다 비할바없이 힘겨운 행군이였다.

엄혹한 자연과의 투쟁, 극심한 식량난과 피로와의 투쟁, 무서운 병마와의 투쟁, 간악한 적들과의 투쟁…

여기에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자신과의 또 하나의 심각한 투쟁이 동반된 이 행군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모진 시련과 난관의 련속과정이였다. 적들의 끊임없는 추격과 포위속에서 하루에도 몇차례씩 치렬한 전투를 벌리고 령하 40℃나 되는 혹한속에서 생눈을 움켜먹으며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으로 행군대오를 이끄시여 100여일만에 기어이 북대정자에 이르시였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탁월한 배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억천만번 죽더라도 기어이 원쑤를 치고 조국을 해방하고야말겠다는 강의한 의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이 나날에 로흑산의 전설과 전료령의 기적이 이룩되고 고난의 행군정신이 창조되였다. 민족의 정기가 사멸당하던 엄혹한 정세속에서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고 겨레들 조국해방성전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한 보천보전투, 무산지구전투와 같은 가슴벅찬 국내진공작전들도 단행되였다.

주체25(1936)년 어느날 구국군의 한 부대장이 위대한 수령님께 저멀리 춘추전국시대로부터 중국명장들은 지략으로 이기고 일본사람들은 호전성으로 싸움을 하는데 김사령은 도대체 어떤 전법으로 싸우기에 련전련승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적이 있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명백한 해답을 주시였다.

전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정신상태라고.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될 당시 그 인원수는 불과 100여명이였다. 이런 무장대오가 비행기와 땅크와 같은 현대적무기로 장비된 100만의 정예무력에 과렬구를 내며 나날이 승승장구하고 강화말전된 근본비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시였듯이 항일유격대의 사상정신적우월성에 있었다.

신념은 미래를 본다는 말이 있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혁명의 1세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금침없이 싸울수 있은것은 그 누구보다도 리상과 포부를 웅대하게 지니고 어떤 환경에서도 미래를 락관하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계승본) 제8권 《미래에 대한 락관》에 서술되여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온 부대가 풀을 우려먹으며 식량고생을 몹시 할 때의 일이다.

산나물을 뜯으라는 과업을 받고 떠났던 몇명의 대원들이 저녁녘에야 돌아왔는데 나물은 한바구니도 채 못되였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꽃향기가 진동하는데다가 족신족신한 잔디밭을 보니 고향생각이 절로 나서 저도모르게 씨름으로 한나절을 보내게 되였다는것이였다.

실판이 된 소대장까지 《잘한다. 잘한다. 해봐라. 또 해봐라…》 하고 손벽을 치며 그들을 부추겼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이없는 그 일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대원들의 구김살없는 락천성을 귀중히 여기시였고 설사 조선혁명이 고난의 행군과 같은 행군을 열백번 한다고 하여도 그들은 끝까지 혁명에 충실할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시였다.

역경을 웃음으로 다스리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사람들, 이 세상이 통째로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믿는 락천가들이였기에 투사들은 결전장에서도 혁명가요를 부르며 원쑤들을 쳐부시였고 개구리료리로 명절음식을 대신하면서도 해방의 날을 그려볼수 있었다. 낯설은 이역에서 황야의 티끌로 사라지면서도 《미래를 사랑하라!》고 부탁하였으며 《공산주의는 청춘!》이라고 그토록 소리높이 웨칠수 있은것이였다.

혁명가의 신념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수령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다.

이 귀중한 철리로 우리는 가렬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어버이수령님을 신념과 뜻과 정으로 받들어 승리의 자욱자욱을 아로새기였다. 백두의 신념과 강의한 정신력으로 우리 인민은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도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고 지난 세기 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였다.

진짜혁명가와 가짜혁명가, 신념과 배신을 갈라내던 지난 고난의 행군의 나날 어버이장군님께 올린 한 지식인의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장군님, 짐승은 먹이를 따라가고 사람은 뜻과 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굶주린 짐승은 주인을 바꾸지만 사람은 굶고 얼고 매맞아죽는다 해도 한번 맺은 뜻은 버리지 못합니다. 참뜻에 살고 참뜻에 죽는것, 이것이 참된 인생의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명세로만 지킬수 없는것이 혁명적신념이며 그것은 혁명의 피바다, 가시덤불속에서 엄숙히 검열되고 더욱 억세여지게 된다.

인생길에서는 별의별 우여곡절을 다 겪을수 있고 갈피를 종잡기 어려운 길이 나설수도 있다. 하지만 신념만 투철하면 그 어떤 절해고도에서도 혁명의 승리를 확신할수 있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누릴수 있다.

지난해 4월 백두의 칼바람을 맞받아 헤치시며 백두산에 오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엄한 모습이 지금도 우리모두의 가슴을 혁명열, 투쟁열로 세차게 높뛰게 한다.

그때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을 만나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투비행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혁명적신념이라고 하시면서 하늘에서의 대결전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전이며 물러설 길이 없는 하늘싸움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근본요인도 혁명적신념, 혁명정신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신념과 정신은 구호나무의 글발이나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만 남아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투사들의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주시였다.

눈속에 묻힌대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부서져 가루되여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열백번 불에 타도 곧음을 잃지 않는 참대처럼 혁명신념을 굽히지 않은 항일의 투사들, 그들이 높이 추켜들었던 신념의 구호가 오늘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진군길에서 더 높이 울려나와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이다.

정녕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도록 하시고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의해 항일의 나날에 투사들이 높이 추켜들었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가 우리 당의 구호로 천만군민의 앞길에 기폭처럼 새겨지고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가리라 백두산으로》와 같은 노래들이 시대의 명작으로 온 나라에 울려퍼질수 있게 되였다.

신념이 강한 당은 변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와해되지 않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사상과 뜻과 신념을 같이하며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군대, 우리 인민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백 영 미

삼천리를 뒤흔든 인민의 환호

71년전, 조국은 해방을 맞이하였다. 망국의 설음으로 봄부림치던 이 땅이 환희로 들끓었다.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그 이름도 빛나는 민족의 태양, 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 려천 70여년전의 환호를 인민은 숭엄한 격정속에 뜨거이 안아본다.

청년영웅, 그 이름 기대하자

주체34(1945)년 11월 《해방일보》는 민족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이신 우리 수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평양에 개선하신 장군께서는 조선의 참된 민주주의국가건설을 위하여, 완전한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결연히 일개 시민의 자태로 정치전선에 나섰다 하니 참으로 반갑기 한량없으며 그 기대 더욱 크지 아니할수 없다.

…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한것을 함께 기뻐하는 동시에 한가지 마음으로 그이의 장래를 축복하며 더욱 크게 그 이름을 기대하자.

청년영웅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절대독립 만세!

조선근로인민해방 만세!》

령도자를 받든 인민의 행복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신 우리 수령님께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의탁하고 그이따라 새 삶을 창조해나가려는것은 모두의 하나같은 지향이였고 념원이였다.

해방의 첫 기슭에 태여나 겨레의 심장을 틀어잡은 《김일성장군개선기》는 우리 수령님을 어떻게 칭송하였던가.

《장군의 만고희세의 조국애와 끓는듯이 열렬한 인민에 대한 희생심이 이 승리를 가능케 하였다.

장군의 원대한 구상에서 출발하는 천재적인 지도력, 현실에 립각한 과학적인 지도력, 추상같은 결단력, 칼날같은 판단력, 태양같은 포옹력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것이다.

실로 이러한 위대한 령도자를 받든 조선인민은 행복이다.》

전조선을 비치는 태양

해방직후 《서울신문》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우리의 영웅 김일성장군》이라는 표제아래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해방의 해 1945년 12월 29일 평양시 해방동 아침해빛이 밝게 비치는 방, 지금 기자는 우리 민족이 낳은 군사적천재 청년영웅이 김일성장군…과 대하고있다. …

일본제국주의압제하에 우리 민족이 암담하였던 정치 경제 문화 특히 곤난하게 제기되였던 식량문제, 당, 정권기관들의 조직형편과 활동정형 등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 새 조선건설을 위하여 모든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모두의 얼굴에 이분이 혹시 김일성장군님이 아니시겠는가 하는 의혹은 짙어갔다.

마침내 책임자동지의 성함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는 로동조합인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방안에 울리였다.

가명을 대드리는 우리 수령님께 그는 또다시 년세는 얼마인가를 알아보는것이였다.

실망의 그늘이 그의 얼굴에 비끼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에 오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개선했을것입니다.》

《지금 어데 와계실것 같습니까?》

《아마 사령부에 가서 물으면 알것입니다.》

기대가 어린 그 모든 물음들에 답변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나도 그 근처에 있을것 같으니 동무가 올라오면 내가 소개하여드리겠다고 친절하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김일성장군님을 꼭 만나뵈와야겠는데…》

《난 어떻게 해서든지 소원을 풀고야말겠소.》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시며 웃음지으시는 우리 수령님.

너무나 젊으시고 너무나 출중하신 그분이 바로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이시였음을 그들이 알았다면 감격이 얼마나 클것인가.

장군께서 오신것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였으니 당시 인민들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줄을 온몸으로 느끼고있었다.

해방조선의 민심은 오직 우리 수령님께로만 향하고있었다.

본사기자 리 금 분

본사기자 리 명 남 찍음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언해설

《항일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명언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면서 창조하신 혁명전통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의 승리적전진의 근본원천으로 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당과 혁명은 온갖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승승장구하는 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류례없이 간고한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시는 과정에 창조하신 항일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체계와 불굴의 혁명정신, 고귀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비롯하여 우리 혁명실천에서 그 진리성이 뚜렷이 확증된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내용이 집대성되여있다.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전로정에서 진할줄 모르는 전인력과 생명력을 발휘하며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한다는데 항일의 혁명전통의 숭고성이 있다.

항일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이 백승만을 떨치게 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단결은 혁명승리의 근본담보이다.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치고 수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은 언제나 승리한다.

항일의 혁명전통의 근본핵은 수령절사옹위정신, 일심단결의 정신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슬하에서 가가거거를 배우며 혁명가로 성장한 항일혁명선렬들은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사령관동지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리를 심장에 새긴 신념의 강자들이였다. 하기에 그들은 죽어도 혁명신념을 버리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온넋을 불태우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혁명적원칙에서 한치의 탈선도 몰랐으며 사령부가 울린 총소리만 듣고서도 사령관동지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실천에 구현하였다. 가장 어려웠던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자기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모셔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여기에 혁명의 1세대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있다.

단결의 중심, 핵도의 중심인 당중앙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견결히 옹호하는것, 이것은 당의 통일단결을 불패의것으로 다지는데서 중핵적인 문제이며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백두밀림에서 높이 올린 수령옹위의 구호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신념의 메아리로 힘있게 울려퍼지고있기에 우리 당과 혁명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항일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피줄기이다.

혁명위업은 한세대에 끝나지 않으며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하여야 할 장기적인 사업이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당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지난해 4월 백두산정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칼바람을 맞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하시였다. 여기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나가며 이 땅우에 기어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뜻과 념원이 실현된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는 백두령장의 웅지가 맥박치고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혁명의 파표이고 기본주로인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의 군대, 사회주의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인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우고있으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인 청년전위들은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들로 역사에 자라나고있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드높이 강산을 진감시키고있는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은 연길폭탄의 정신과 천리마시대의 서사시를 심장깊이 새긴 우리 인민만이 전개할수 있는 영웅적투쟁이다.

항일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승리의 원동력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항일의 혁명전통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김 성 룡

갓 해방된 조선의 민심

김일성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조선인민혁명군이 해방된 조국으로 나왔다는 소식이 발에 날개라도 돋친듯 퍼지자 만사람의 관심은 여기로 모아졌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국땅을 조용히 밟으시였다. 하여 그이를 일일천추 기다리는 인민들과의 상봉과정에는 많은 일화들이 생겨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한없이 고결한 풍모를 지니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다.》

주체34(1945)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계층 인사들을 만나시였다.

방에 들어서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우리 수령님께서는 동무들, 얼마나 수고들 하셨는가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이의 인품에 저도모르게 끌린 인사들은 수령님의 불으심에 저마끔 자기생각을 스스럼없이 터놓았다.

시민들의 사상동태와 생활형편 특히 곤난하게 제기되였던 식량문제, 당, 정권기관들의 조직형편과 활동정형 등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 새 조선건설을 위하여 모든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모두의 얼굴에 이분이 혹시 김일성장군님이 아니시겠는가 하는 의혹은 짙어갔다.

마침내 책임자동지의 성함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는 로동조합인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방안에 울리였다.

가명을 대드리는 우리 수령님께 그는 또다시 년세는 얼마인가를 알아보는것이였다.

실망의 그늘이 그의 얼굴에 비끼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에 오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개선했을것입니다.》

《지금 어데 와계실것 같습니까?》

《아마 사령부에 가서 물으면 알것입니다.》

기대가 어린 그 모든 물음들에 답변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나도 그 근처에 있을것 같으니 동무가 올라오면 내가 소개하여드리겠다고 친절하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김일성장군님을 꼭 만나뵈와야겠는데…》

《난 어떻게 해서든지 소원을 풀고야말겠소.》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시며 웃음지으시는 우리 수령님.

너무나 젊으시고 너무나 출중하신 그분이 바로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이시였음을 그들이 알았다면 감격이 얼마나 클것인가.

장군께서 오신것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였으니 당시 인민들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줄을 온몸으로 느끼고있었다.

해방조선의 민심은 오직 우리 수령님께로만 향하고있었다.

본사기자 리 금 분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우고있다.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회상기학습을 통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사들의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따라배워

청진청년역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종업원들에게 항일혁명투사들이 발휘한 백두의 혁명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도서들을 가지고 읽은책말표모임을 자주 조직하여 당원들과 종업원들이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따라배우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충정의 200일전투로 들끓는 현장에 나간 한 일군은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격식없는 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한것처럼 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오늘의 보람찬 진군길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는 그의 열렬한 호소는 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본사기자

혁명의 총대는 영원한 승리의 보검

얼마전 우리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위대길에서 삼지연대기념비를 찾았다.

울창한 수림속을 지나 교양마당에 들어서니 백두산을 배경으로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이 우뚝이 안겨왔다.

항일의 군복차림에 싸창을 드리우시고 한손에 쌍안경을 드신채 조국산천을 바라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느라니 저도모르게 가슴이 찌릿해왔다.

얼마나 많은 사연을 말해주는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우리 수령님의 모습인가.

우리의 눈길은 백두산청년장군께서 진격의 총성을 울리시던 싸창에로 향하였다.

일찌기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두자루의 권총을 귀중한 유산으로 물려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총을 유산으로 조국해방에로의 첫걸음을 내디디시였고 우리 혁명의 첫 무장대오를 결성하시였다. 면적의 총성을 울려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힘있게 선언하시며 조국동포들을 항일혁명의 성전에로 불러일으키시였고 총대로 기어이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어찌 그뿐이랴. 새 조국건설시기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총대로 쟁소한 우리 공화국을 지켜내시였고 미제를 쳐부시는 조국해방전쟁에서도 승리하시였다.

백두산위인의 그 총대는 정녕 조선혁명의 자랑찬 승리의 력사가 담긴 백두산총대이다. 하기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오늘도 백두산과 함께 계시며 싸창을 메고계시는것이 아니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과 항시적인 전쟁위협속에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혁명의 총대를 강화하고 튼튼히 틀어쥐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경건히 우러르는 우리에게는 문득 군복차림에 싸창을 메고계시는 빨찌산 김대장을 뵈오며 선군의지를 더욱 굳히시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워진 백두의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이곳에 찾아오신것이 아니였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빨찌산군복차림으로 오늘도 백두산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시며 백두산총대로 기어이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선군조선의 사회주의강국의 세기로 떨치고야말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으시던 백두령장 김정은원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숭엄히 안겨왔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인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니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세여진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총대로 마련해주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이 땅에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으신 그이께서는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시며 자신의 결심을 실천으로 보여주시였고 력사적인 사변과 업적으로 그것을 빛나게 확증하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영예는 백두산총대와 더불어 지켜지고 빛나고있다.

총대로 승리한 20세기의 사회주의수호전이 이것을 말해주었고 총대를 앞세우고 마련해가는 오늘의 사회주의강국건설성과가 그것을 보여준다.

돌이켜보면 총대가 강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새해의 설맞이공연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마음껏 웃을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마음놓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과 같은 기적적인 대공사를 완공할수 있었으며 당창건 70돐경축 1만명대공연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과 같은 화려한 무대를 10월의 대축전장에 펼쳐 세상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수 있었겠는가.

총대가 강했기에 우리는 령토나 인구수는 남보다 작으나 그 누구에게도 굽신거림을 몰랐고 세계적인 사변을 이 땅우에 펼쳐놓을수 있었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그 누구보다도 총대의 귀중함을 더욱 확신하시고 온 나라에 총대바람, 백두산바람이 휘몰아치도록 하시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정력적인 헌신의 낮과 밤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우리의 총대는 조국의 안녕과 운명을 지키는 제금의 총대인 동시에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고 마련하는 투쟁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 창조의 무기이다.

우리는 세기의 벽랄을 휘날리는 백두산을 우러러보았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백두산의 정서가 류다르게 느껴졌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사용하던 백포를 쓴듯싶은 백두산이 군복자락을 날리며 싱그러운 풀냄새를 풍기는것 같았다. 수려한 밀림속의 이깔나무숲이 총대가 되여 백두산을 옹위하고있는듯싶었다.

백두산총대는 오늘도 영원한 승리의 보검이라는 진리를 깨우치며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온 나라에 폭풍쳐가고있었다.

본사기자 김 준 혁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자

자력자강의 정신을 심어주는 사상교양사업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조직들이 자강력제일주의를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최근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도 바로 이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을 자강력의 제일투사로 만드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당위원회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 계기가 있다.

높아진 200일전투목표를 두고 일부 일군들은 신심이 없어하였다. 하루생산계획만 보아도 전해에 비해 근 2배로 달하였던것이다.

부족되는 자재는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높아진 계획앞에 주눅이 든 일부 일군들의 정신상태였다.

6월초 어느날 당위원장 김수원동무는 고원탄광 막장으로 들어갔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탄부들속에 들어가는것은 굳어진 습관이기도 하였다.

로천갱의 올리굴까지 들어가 채탄중대원들을 만난 당책임일군은 높아진 200일전투목표와 어려운 조건을 그대로 덮어놓고나서 그 방도를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조건은 어려웠지만 우는소리를 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말과자재만 보장해달라고, 그러면 200%가 아니라 300%도 자신있다고 주먹을 내흔들며 당결정을 지지해나서는 탄부들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이어 들린 운곡탄광 선봉갱 굴진막장에서도 당책임일군은 탄부들의 당정책절사관철의 열도를 절감하였다. 문제는 조건에 포로되여 우는소리를 하는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과 태도였다.

200일전투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일군들의 패배주의적관점을 깨버리는데서 찾은 당위원회는 그들을 자강력의 소유자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투쟁에 불을 점었다.

우선 일군들속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신념으로 체득시키기 위한 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였다.

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출판물보급원들을 준비시켜 당, 행정일군들이 모이는 계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3권에 있는 **《밀림속의 병기창》**에 대한 해설모임을 진행하였다. 또한 예술영화 《금진강》에 대한 실효모임을 조직하였다. 해설모임과 실효모임을 통하여 일군들은 자력갱생의 정신을 심어주는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속에 자력자강의 정신을 깊이 체득시켰다.

또한 당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힘있는 정치사업을 들이댐으로써 그들이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적극 추동하였다.

책임일군들이 실천적모범을 보였다. 고원탄광에 나간 당책임일군이 김혁청년돌격대 굴진막장에 들어가 굴진공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6월 굴진계획을 126%로 넘쳐 수행하고 예비탄발조성의 전망을 열어놓도록 한것이 대표적실례이다.

기적적인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났다.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200일전투 첫달, 두번째달생산계획이 넘쳐 수행되였다. 고원탄광에서는 전차정류기리용에서의 불합리성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극복하고 운반효률을 3배로, 수동탄광에서는 탄차수리장을 개건하여 운반능력을 2배로 높이였다. 세멘트공장의 생산정상화와 상점개건보수, 양표장확장 등 200일전투목표수행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이곳 당위원회사업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자강력의 소유자로 키울 때 못해낼 일이란 없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향 란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광기계수리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광기계수리공장 지배인 서정호동무가 탄차베아링강을 자체로 만들것을 발기했을 때였다.

일부 일군들속에서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그들속에는 지난 기간 실력도 높고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한몫 단단히 한 사람들도 있었다.

초급당위원장 한기철동무는 일부 사람들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이 남을 쳐다보는데 습관된 수입병에 있다고 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에서 내세운 전형단위들을 따라배워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높다고 해도 수입병에 포로되면 그것을 깡그리 발휘할수 없다.

그러면 초급당위원회가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수입병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조직하였는가를 보자.

우선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놓고 종업원들속에 수입병을 없앨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갔다.

수입병을 없앨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언해설사업, 설비현대화에서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당의 의도를 완벽하게 실현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의 경험을 소개한 《로동신문》 기사에 대한 독보…

이런 사업은 현시기 수입병을 없애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자립경제의 명맥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전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했다.

다음으로 실천과정을 통하여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베아링강을 자체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총매진하게 하였다.

자체로 개발한 베아링강을 가지고 탄차베아링을 생산했을 때였다. 그런데 그 질이 높지 못했다. 이런 때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앞채를 메고 대오를 이끌어나가는 화선지휘관이 되였다. 지배인, 초급당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이 과정에 몇가지 첨가제만 있으면 탄차베아링강의 질을 높일수 있다는 착상을 내놓게 되였다. 하루밤에 수백리를 달려 필요한 원료를 구입해오는 인수원이 되기도 하고 투짐한 후방사업으로 기술자들의 사기를 돋구어주는 군수관의 역할도 하였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에서 큰 힘을 얻은 기술과장, 열처리작업반장, 주강종합반장을 비롯한 기술자, 기능공들은 남의것을 그대로 모방하는것은 민족적자존심이 없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만들바에는 남들보다 월등하게 해야 한다는 립장에서 분발해나섰다.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끝에 첨가제에 의한 새로운 열처리방법을 도입하여 베아링강을 자체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그것으로 생산한 탄차베아링은 수입해오던것보다 질이 훨씬 좋았다.

70일전투기간에만 해도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1500개의 탄차베아링을 만들었다. 련합기업소에서 열달동안 쓸 량이였다. 탄차베아링강을 자체로 만들게 됨으로써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탄차베아링을 짱짱 생산해낼수 있게 되였다. 이 과정에 련합기업소적인 탄차실동대수가 늘어나 7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게 된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중요하게는 일부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던 수입병이 싹 없어졌다.

수입에 명줄을 걸면 약자가 되고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강자가 된다. 바로 이것이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찾은 교훈이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일군들이 실력전의 기수가 될 때

평양기료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일군들은 학습을 꾸준히 하여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을 소유하며 자기 부문의 사업에 정통하여야 하겠습니다.》

공급창대미래의 실안내를 새로운 형태로 제작할 때의 일이다.

까다롭고 복잡한 형태제작인것으로 하여 기술자들은 여러가지 조건에 따르는 인자들의 특성값을 찾기 위해 며칠밤을 새우며 고심하고있었다.

어느날 초급당위원장 엄혁동무는 기술자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다.

방도를 찾지 못해하는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난 초급당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이 문제에 대하여 좀 생각해보았는데 인자들의 변화에 따라서 형태제작을 할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방향을 바꾸어 처음부터 인자의 변화를 고착시키는 방향에서 연구를 심화시키면 어떻겠는지…》

순간 기술자들속에서 탄성이 터져올랐다.

참으로 기발한 착상이였던것이다. 알고보니 너무도 간단한 리치였다. 하지만 이런 기발한 착상은 누구나 내놓을수 있는것이 아니다.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일인것이다.

불현듯 그들의 머리속에는 창안작업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문제를 놓고 열렸던 협의회가 떠올랐다.

협의회에서는 현대화의 높은 목표를 수행하는데 많은 자재와 자금이 들어야 하는것으로 하여 이렇다할 안을 내놓지 못하고있었다. 이때 초급당일군이 공장의 기능공력량을 새로 편성할데 대한 새로운 안을 내놓아 사람들을 놀래웠다.

이때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얼마나 컸던가. 부족되는 자재, 자금타산만 생각하며 공장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쓸 생각을 못했던것이다.

그날 일군들은 당일군의 높은 실력을 놓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당사업을 하느라 늘 바쁜 그였지만 언제 한번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에 따르는 다양한 지식들을 폭넓게 소유하기 위해 늘 사색하고 탐구했다.

그 나날 한밤중에 기술자들의 질문을 두드린적은 그 몇번이였고 현장기술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착상을 펴워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론의를 거듭한적은 또 얼마였던가.

기술자들과의 담화는 그에게 하나의 강의였고 일러는 선진과학기술을 배우는 교정이였다. 이렇게 그는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학습하며 지식의 탑을 하나하나 쌓아나갔다.

이런 그였기에 어느 한 중요부분품제작에서 만능후라이스의 조종부분이 열을 받아 가동이 중지되였을 때 현장에서 즉시 기술적문제를 풀어줌으로써 종업원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을수 있었던것이다.

이렇듯 당책임일군이 실력전의 기수가 되여 과학기술사업을 주도해나가니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전례없는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게 되였다.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유연창대직기의 창대미리, 창대피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수십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였으며 그 과정에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실력전의 강자들로 자라나게 되였다.

그러니 당일군의 과학기술실력은 얼마나 중요한가.

본사기자 최 영 길

함금철공장에서 —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 부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로 생산자

누구나 과학기술의 룡마에 오르도록

경성애자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과학기술중시이자 자강력의 높이이다. 경성애자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을 통해서도 이것을 잘 알수 있다.

두해전 1월 어느날이였다. 방길도록 60m소성로걸을 떠나지 못하는 한 일군이 있었다. 초급당위원장 방두진동무였다.

우리 나라에 필요한 애자는 경성애자공장에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자면 능력이 작고 낡은 이 소성로에만 매달려서는 안되였던것이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날로 늘어나는 애자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자면 능력이 큰 70m소성로를 새로 건설해야 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선뜻 결심하고 나서는 일군이 없었다. 당시 공장의 실정에서 자체의 힘으로 70m소성로를 건설한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였던것이다.

초급당위원장은 기술자, 기능공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벌렸다.

새로운 소성로를 건설하라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또 건설해줄 사람도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자면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70m소성로를 일떠세워야 한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쪼아박고 분발해나서자.

당일군의 절절한 호소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이렇게 되여 70m소성로건설문제가 당결정으로 채택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였다. 소성로와 함께 40여년을 일해오는 김기덕동무를 비롯한 오랜 기능공, 숙로공들이 돌격대기발을 앞장에서 휘날리며 전투를 벌렸다. 초급당위원장은 늘 전투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수백m의 가스관망과 수십대의 제품대차를 비롯한 수많은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제작설치하는 과정에 수십건의 기술혁신안이 창안도입되였다.

소성로건설이 마감단계에서 벌어지던 때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소성로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할것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머리를 저었다. 그들은 자체의 힘으로 소성로를 건설하는것만도 기적이다, 쇠물을 끓이거나 마그네샤크링카를 생산하는 로도 아닌 애자를 생산하는 로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하려면 설비를 수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심이 없어하였다.

이때에도 초급당위원회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주었다.

이렇게 되여 소성로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국가과학원의 연구사들과 지혜를 합쳐 국산화된 고온공기연소설비와 부분품을 성과적으로 설치하고 소성로운영에 PLC조종체계를 받아들이였다.

고온공기연소기술이 도입된 70m소성로가 시운전에서 단번에 성공하고 질좋은 애자들이 대량생산되게 되였을 때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기 힘에 대한 긍지, 과학기술의 위력을 새롭게 느끼게 되였다.

지난 총정의 70일전투때에도 초급당위원회는 모두가 과학기술의 룡마타고 질풍같이 내달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여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100% 수행하면서도 현대적인 불분해기 5대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설치하는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게 하였다.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공장앞에 나선 과업은 매우 방대하다. 하지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과학기술의 룡마타고 내달릴 때 점령하지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이 그들의 확고한 신념이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중앙미술창작사창립 30돐 기념보고회 진행

중앙미술창작사창립 30돐기념보고회가 6일에 진행되였다.

박춘남문화상, 중앙미술창작사, 미술부문 일군들, 창작가, 종업원들, 교원, 학생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중앙미술창작사 사장 송성일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올해를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에 전당,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중앙미술창작사창립 3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문학예술의 근본사명은 전체 인민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어주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주체혁명위업을 추동해나가는것입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시대적요구들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75(1986)년 8월 7일 일반미술작품을 전문적으로 창작보급하는 창작기관으로 중앙미술창작사를 내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앙미술창작사가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면서 창작가들이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 나가 자신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작품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도록 하시였다.

중앙미술창작사가 걸어온 로정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최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오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연고자들의 초상미술작품들을 창작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작품들을 친히 보아주시면서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작사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지난 30년간 당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올수 있었다.

창작사의 미술가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셔감 총정의 일념안고 절세위인들의 태양상초상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하여 수령영생위업실현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조선혁명박물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옥류아동병원, 과학기술전당, 신천박물관, 중앙계급교양관 등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의 진렬전시작품들도 훌륭히 창작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종업원들이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이 의도하고 시대와 인민이 지향하는 훌륭한 명작들을 창작완성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에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적성과를

피현군 로중협동농장에서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피현군 로중협동농장의 강냉이밭들을 돌아보느라면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개꼬리뽑기를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 내밀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럴만도 하였다. 지난 시기의 경험은 강냉이의 개꼬리를 뽑아주면 거기에 가던 영양물질이 모두 이삭에로 돌려지면서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수강냉이수를 줄이고 이삭당 질량을 늘일수 있었다. 그리고 키를 작게 하여 비바람에 견디게 하고 병해충구제에도 좋았다.

이 사실을 놓고 김창남, 문석철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넘리 받아들일데 대한 당정책의 생활력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 알곡생산에서 통장혼을 부를수 있는 기본열쇠가 있다.

이런 각오밑에 농장일군들은 개꼬리뽑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것만 잘하여도 농장적으로 얼마든지 강냉이소출을 더 높일수 있었던것이다.

농장에서는 강냉이의 개꼬리 나오는 시기가 한포전에서도 차이나는 특성에 맞게 고갱이속에서 개꼬리의 끝부분이 나와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우선 강냉이생육상태를 고려하여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면서 연약한 개체들의 개꼬리는 다 뽑아주었다.

다음으로 이들은 개꼬리를 감싸고있는 1~2개의 잎을 동시에 뽑아주는것도 놓치지 않았다. 자기 역할을 원만히 한 이 잎들을 없애면 소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그 아래잎들의 빛합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정이 끝난 다음에는 남겨두었던 개꼬리도 모조리 없애도록 하여 거기에 가던 영양물질이 이삭에로 돌려지도록 하였다.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울리려는 당의 뜻을 실천적성과로 받들기 위해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나가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투쟁은 훌륭한 결실을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황 철 민

질좋은 풀거름을 더 많이

안악군 원룡협동농장에서

다는 욕망으로 많은 량의 풀을 베는데만 급급하면서 미처 베놓은 풀을 끼들이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있었다.

만일 높아가는 풀더미만을 보고 평가를 한다면 비료효과성이 높은 질좋은 풀거름을 생산할수 없었다. …

결국 분조에서는 평가기준을 달리 정하였던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분조원들은 큰 가책을 받았다. 이것을 계기로 그들은 때는촉촉 그날로 끼들인 청풀량이 풀베기철의 작업실적으로 된다는것을 새기며 분발해나섰다. 그후부터 풀베기성과가 더욱 확대되였다.

본사기자 전 명 일

풀베기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린다. —영광군 관수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위대한 우리 당이 이런 혁명적인 지식인들을 키워냈다

양묘장통합생산체계를 개발한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과학자들의 투쟁

우리는 지금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이 바라보이는 전망대에 서있다.

그 옛날 옹기장들이 여기저기에 옹기굴을 쌓고 경쟁적으로 옹기를 구워냈다는 여기 옹기골에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천지개벽의 력사를 펼치며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선 우리 나라의 첫 양묘공장이다.

그러나 눈부신 모자람과 안겨오는 가시적인 변천만으로는 이 세계적인 양묘장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 말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세심한 지도와 령도밑에 제122호양묘장은 오늘과 같이 세계적인 양묘장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습니다.》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총직한 충대동지, 당의 과학전사들인 우리의 군인건설자들과 과학자들이 백절불굴의 정신력으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키고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결사보위한 성스러운 혁명의 전구와도 같은 곳이다.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인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를 3대기둥으로 하여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이 어떻게 일떠서고있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준 선군조선의 축도,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념비이다.

주체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전변된 바로 여기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우리 식의 첫 양묘장통합생산체계가 세상에 나왔다.

이 땅에는 로동당의 지식인들이 있다

지난 1월 6일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폭음이 장쾌하게 울리였다.

우리 조국을 자주의 혁강국의 절대적인 지위에 올려세운 이 력사적인 대장거에 온 행성이 통째로 뒤흔들렸다. 이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새해벽두부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전례없이 높이며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였다. 살기어린 그 검은 화살의 첫째가는 목표가 바로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현대화대상이였다. 우리 당이 인민군대를 굳게 믿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선물로 드리자고 세상에 내놓고 선포한 이 공사의 의의에 대하여 적들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첨단양묘설비들이 제재항목에 오르고 엄청난 값을 부르며 거드름을 피우던 해당 나라의 제작회사는 순간에 자라목이 되여버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어이 세상에 자랑할만 한 양묘장을 일떠세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결사보위하기 위한 인민군대의 관가리결전이 벌어지는 성스러운 전구에 국가과학원의 사랑하는 과학전사들을 제일먼저 불러주시였다.

정녕 그 부르심은 하늘같은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며 키우신 우리 과학자들에 대한 위대한 어버이의 크나큰 믿음이였다. 우리가 잘살고 부강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 원쑤들에게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자력자강의 철추를 내리자고 우리 과학자들을 소리쳐부르는 조국과 인민의 절절한 기대, 시대와 혁명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당과 수령의 전투적호소였다.

온 국가과학원이 떨쳐나섰다.

기어이 우리의 손으로 첨단양묘설비들을 개발제작하자!

건인불발의 의지와 불타는 적개심으로 만장약된 과학기술의 보검을 안고 우리 당의 과학전사들은 군인건설자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총궐기해나섰다. 바로 그 대오속에 양묘장통합생산체계구축을 맡은 우리의 주인공들인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일군들도 있었다.

지난 2월말 처음으로 현지답사를 위하여 제122호양묘장현대화공사장에 나간 소장 최성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상상했던것보다 더 당대하였던것이다. 엄펫 타산해보아도 평양메기공장에 비하여 작업량은 거의 두배, 하지만 차례진 시간은 겨우 두달정도, 그때의 1/5밖에 안되였다. 생소한 양묘부문이라는 생각이 더더욱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물론 정보과학기술연구소에는 우리 나라 통합생산체계개발분야의 개척자들중의 한사람인 소장 공훈과학자 박사 최성동무를 비롯하여 이 분야에서 권위있고 강력한 과학기술력량이 있었다. 체계구축속도를 보장할수 있는 우리 식의 분산형조종설비 《미래 102》와 같은 첨단기술제품의 개발 및 생산토대도 있었으며 세멘트, 타일, 식료공장 등 각이한 부문의 여러 단위들에 대한 구축경험도 풍부하였다. 지난해 10월 우리 나라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전변된 평양메기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자기들이 구축한 통합생산체계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고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린 실장 조석철동무를 비롯하여 20대, 30대의 젊고 쟁쟁한 과학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맞다들었던 대상들과는 대비도 할수 없이 청에히고 방대한 과제를 두고 솔직히 자신감보다 위구심이 더 컸다는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손에도 땀이 쥐여졌다.

그러나 그 누구도 대신해줄수는 없었다. 반드시 성공하는 길만이 우리 당의 절대적인 존엄을 지키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결사보위하는 길이였다.

과학자들은 결연히 개척의 생눈길에 들어섰다.

하지만 성공에로의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조종실건물도 조종대상들도 아직은 없는 찬바람부는 허허벌판에 설치한 천막에서 연구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전례없이 불리한 조건은 결코 큰 문제가 아니였다. 제일 안타까운것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것이였다.

군인건설자들의 간고분투의 투쟁에 의하여 겨울철의 불리한 날씨조건을 물리치며 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김광명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직접 현장을 타고앉았다. 통합생산체계의 기반으로 되는 자동조종체계구축을 위한 하부구조설계와 시공보장을 앞세워야 했던것이다. 종전처럼 설비가 다 갖추어진 다음 통합하자면 시간이 어방없이 모자랐다. 과학자들은 양묘설비를 맡은 국가과학원의 매 연구소들에 먼저 나가 설비들의 동작상태와 조종방식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미리 료해하고 앞으로의 통합방안을 합의하였다. 그에 해당한 조종프로그람개발이 동시에 벌어졌다. 그야말로 분분초초로 시간을 쪼개야 하는 초긴장한 립체전이였다.

경영관리체계와 생산관리체계개발을 총책임진 차광혁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의 개발전투도 총로성없는 시간과의 격렬한 전쟁이였다.

나무모의 성장모의예측프로그람을 개발할 때였다. 며칠동안이나 신고하며 짠 프로그람으로 예측한 값이 실측값과 심하게 차이났다. 나무모의 생장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료가 부족한데 근본원인이 있었다.

일분일초가 새로운 때에 설상가상으로 아무런 전진도 없이 밤시간을 보낸 때이면 새날이 밝는것조차 두려웠다. 피는 비록 흘리지 않아도 그 피를 짜고 태워야만 열수 있는 성공에로의 길은 미지의 세계를 점령하기 위한 탐구의 길이기 전에 보통의 각오나 의지로써는 감당하기 힘든 자기자신과의 정신육체적싸움의 길이였다. 이런 무형의 철투속에서 김명성, 김강호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경영관리체계와 생산관리체계의 알고리듬을 작성하였고 한철순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통합생산체계의 얼굴과도 같은 대면부를 최상의 수준에서 설계해나갔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차광혁, 조석철동무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큰 힘을 안겨준것은 불사신처럼 철야전투를 벌리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이였습니다.》

《간밤에 분명히 있던 큰 산이 아침이면 없어지고 아침에는 벽체뿐이던 건물에 지붕이 씌워졌습니다. 만리마속도가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서 매일, 매 시각 창조되고있었습니다.》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세계적인 양묘장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군인건설자들의 숨결을 직접 느끼며 그들과 함께 손잡고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나날에 20대, 30대의 청년과학자들은 한생 잊을수 없는 귀중한 체험을 하였고 지금껏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무서운 힘을 보았다. 그럴수록 이런 거창하고 보람찬 위훈창조의 진구로 우리 과학자들을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사무쳐오고 신심과 용기가 백배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전구에서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를 배우며 과학자들은 탐구와 헌신의 자욱을 푸렷이 찍어나갔다.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으로 원형삼목장, 온실에서 키워낸 나무모들을 야외에서 적응시키는 재배장, 옹기나무모재배구 등이 하나하나 일떠서고 국가과학원의 여러 연구소들에서 설계제작되여나온 종자선별 및 처리설비, 나무모모장 및 저장설비, 경기질생산설비 등 첨단양묘설비들이 속속 설치되였다. 이와 더불어 마침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양묘장통합생산체계는 자기의 자태를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진정 이것은 첨단과학기술의 산물이기 전에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렬한 충정으로 불타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다져진 우리 과학자들의 억척같은 정신력의 창조물이였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장벽에는 이렇게 통구멍이 나고있었다.

흥분과 열정이 넘치는 과학자들의 추억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심장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지절로 터져나왔다.

가증스러운 원쑤들아, 가소롭기 그지없다.

불굴의 정신력으로 비약하는 이 땅에는 조선로동당이 키워낸 혁명적인 지식인들이 있다!

높은 실력과 첨단돌파의 통장훈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을 찾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종합조종실에서 드넓은 양묘장의 생산과 경영활동전반을 구석구석까지 손금보듯 장악하고 조종하며 예측까지 할수 있게 구축된 통합생산체계를 보면서 그 개발자들의 높은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제122호양묘장의 통합생산체계개발과 관련한 론의는 처음부터 매우 심각하게 벌어졌다. 당시 과학자들에게는 양묘장통합생산체계에 대한 아무런 료상이 없었다. 더우기 제122호양묘장은 다른 나라들의 양묘장처럼 단일한 수종이 아니라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한해에 수천만그루나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양묘공장이였다. 산림부문과는 거리가 먼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양묘장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들도 아직 실현하지 못한 나무모영양관리, 생태환경관리 등을 위한 온실조종을 성공시킬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힐치 않은 개발창조의 첫 기슭에 선 이들에게는 탐구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귀중한 말씀이였다. 제122호양묘장을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자동화, 기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세계적인 양묘장으로 멋들어지게 꾸리자고 하신 그이의 금옥같은 말씀을 자자구구 새길수록 과학자들은 앞이 확 트이는것만 같았다.

토지절약형, 로력절약형양묘장, 나라의 산림과학을 선도할수 있는 중요한 과학기술보급기지!

당조직의 지도가 심화되는 속에 연구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제122호양묘장을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양묘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료상을 줄수 있는 양묘장으로 되게 하는데서 통합생산체계가 중추적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데로 총적인 연구개발방향을 세웠다. 목표는 한해에 나무모를 두회전 생산하기 위한 파학연구와 현행나무모생산을 완전히 일체화시킬수 있게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는것이였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는 생산에 속속 도입하고 그 과정에 나오는 생산결과는 다시 새로운 재배전략작성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들어갈수 있게 하나로 관통된 통합생산체계를 구성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종자가 확정되고 구체적인 연구과제들이 선정되였다.

국토환경보호성의 일군들과 리경태동무를 비롯한 산림과학원의 과학자들이 이들을 사심없이 적극적으로 도와나섰다.

지난 4월초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양묘장통합생산체계개발과 관련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정보과학기술연구소의 개발방안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통합생산체계개발분야에서 관록있는 연구집단으로서의 실력이 검증되였다.

생눈길과도 같은 탐구의 길을 첫걸음부터 성공을 향하여 자신만만하게 걸으며 과학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곧 과학이고 진리이며 오직 당정책대로만 한다면 그 어떤 첨단의 요새도 단숨에, 단번에 점령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물뽐프장들과 물탕크들에 대한 조종과 양묘장전반에 대한 환경감시조종 등을 위하여 무선통신망체계를 구축할 때였다.

사실 초기설계에는 유선통신망체계를 구축하게 되여있었다. 공사완공기일이 하루하루 박두하면서부터 방대한 량의 케블작업 등이 커다란 난문제로 제기되였다.

가장 빠르면서도 투자를 줄이고 세계적인 양묘장의 제모에도 맞게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길은 무선통신망체계를 구축하는것이였다. 방도는 명백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구축해본 경험도, 꼭 성공한다는 담보도 전혀 없었다. 물뽐프장들과 물탕크들에 대한 조종은 어느 정도 파악이 있는 무선통신기술로써 실현할수 있었다. 하지만 환경감시조종대상과 같이 통신량이 많고 실시간조종이 필요한 생산공정에 도입되고있는 새로운 무선통신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없었다. 그러나 이 길밖에 더 다른 길은 없기에 온 공사장이 기대를 안고 과학자들을 지켜보았다.

연구소의 일군들은 단호히 결심을 내리였다.

무선통신망체계연구도 도입도 동시에!

이 길에서 굳게 믿은것은 20대, 30대에 기어이 자기 분야에서 패권을 쥐려는 자신만만한 야심에 넘쳐있는 청년연구집단의 높은 실력이였다.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김명진동무를 비롯한 청년과학자들은 통신거리, 안테나설치방향, 통신량부하 등 여러가지 지표들에 대한 10여차의 시험끝에 마침내 종합조종실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있는 대상에 대한 첫 무선통신을 성공시키고야말았다.

아직은 우리 나라에서 미개척분야나 다름없는 최신무선통신기술에 의한 생산공정의 감시조종실현을 위한 우리의 주인공들의 첫 자욱은 이처럼 제122호양묘장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나날에 뚜렷이 찍혀지게 되였다. 성공의 그날에 우리의 청년과학자들이 흩고웃으며 터친 환희를 어떻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미지의 세계는 이렇게 개척되고있었다. 기발한 착상으로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였던 수중전동뽐프들의 보호를 위한 조종 실현, 분무대차와 물관리체계의 여러 조종대상들에 대한 무선통신망체계화립의 련이은 성공…

류남철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보조생산공정들에 설치된 각이한 통신방식을 가진 양묘설비들을 통합조종하는데 성공하였다.

여러개 호동의 묘목온실들에 대한 조종체계를 단 5일동안에 우리 식으로 확립하고 통합하는데 성공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통쾌한것인가.

사실 나무모생산을 한해에 두회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묘목온실이다. 그러므로 양묘장통합생산체계에서는 묘목온실에서의 온도, 습도, 해비침도, 탄산가스함량을 비롯하여 나무모재배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조종하는것이 기본이라고도 할수 있다.

정보과학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묘목온실조종체계를 우리 식으로 확립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달라붙은것은 지난 5월 8일이였다.

아직 이런 대상에 대한 통합조종을 실현해본 경험이 없었지만 오철혁, 오헌일동무들을 비롯한 우리 과학자들은 당이 안겨준 담대한 배짱을 안고 자신만만하게 달라붙어 온실조종체계를 짧은 기간에 우리 식으로 확립하기 위한 시간과의 결사전을 벌렸다.

최성동무의 지휘밑에 과학자들은 온실조종체계를 우리 식으로 확립하고 양묘장통합생산체계에 통합시키기 위한 마지막전투에 들어갔다. 이것은 제122호양묘장현대화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되는 대상이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릴 시각을 한시라도 한초라도 앞당길 결사의 각오를 안고 과학자들은 온실조종을 위한 매 수행요소들의 조종방안을 다시 세우고 해당한 알고리듬을 작성해나갔다. 앞으로 운영자들이 현장조종을 쉽고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리정훈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망통신용메드현시조종장치를 새로 개발하고 온실조종체계의 대면부도 합리적으로 설계하였다. 분산형조종설비 《미래 102》와 온실조종체계사이의 호환 실현, 양묘장통합생산체계에 통합…

드디여 지난 5월 12일 밤 종합조종실에서는 묘목온실조종을 위한 총련동시험이 군인건설자들과 지휘관들을 비롯한 모두의 관심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종합조종실에 앉아 자그마한 마우스로 멀리에 떨어져있는 묘목온실의 배풍기와 송풍기를 돌리고 야외해가림막, 실내해가림막 등을 올리고내리며 온도를 조종하는 과학자들의 모습에 누구나 감탄하였다.

불과 5일동안에 일어난 기적이였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과학자들이 부른 또 하나의 첨단돌파의 통장훈이였다.

그때로부터 이틀후인 지난 5월 14일 우리의 주인공들은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을 찾으신것이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에서는 양묘장의 여러곳을 커다란 만족속에 돌아보시면서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에서 양묘장통합생산체계를 우리 식으로 연구개발한것은 큰 성과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종합조종실에서 감격에 북받쳐 뜨겁게 올리는 소장 최성동무의 인사도 받아주시고 양묘장통합생산체계에 대한 해설도 오랜 시간을 내시여 구체적으로 들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통합생산체계를 연구개발한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연구사들이 실력이 있다고,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연구사들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양묘장통합생산체계를 연구개발한 개척자들이라고, 국가과학원에서 양묘장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처음 해보지만 이악하게 달라붙어 짧은 기간에 당에서 준 과업을 기어이 관철하였는데 우리 당이 키워낸 혁명적인 지식인들이 확실히 다르다는 최상최대의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저희들은 오직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했을뿐입니다.

세계앞에 실력으로 조선의 과학자들의 존엄을 떨칠수 있었다면 그것은 어느 개별적인 과학자의 지혜와 재능의 힘이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에게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안겨주신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의 힘이고 열화같은 정의 힘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 *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짧은 기간에 기적같이 일떠선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을 보며 세계는 다시한번 놀랐다.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무적의 총대와 함께 불패의 성벽을 이룬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을 똑똑히 보았다.

선군조선의 과학기술기관차는 오늘도 200일전투의 새로운 승리를 부르며 사회주의강국을 향하여 질풍노도와 같이 내달리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같은 충정을 원동력으로, 당과 수령이 안겨준 지혜와 재능과 열정으로 다지고다져온 야심만만한 실력을 추진력으로 하여 전속 또 전속으로!

본사기자 려명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6일 스위스공산당 대표단,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주체로 잇는 일조우호대표단 여러곳 참관

주체로 잇는 일조우호대표단 과학기술전당 참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마쯔모또시민회의 부회장 고이와이 다까시를 단장으로 하는 주체로 잇는 일조우호대표단이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먼저 과학기술전당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작품에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세상에 둘도 없는 새 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국보적인 건축물로 웅장하게 일떠선 과학기술보급거점의 여러곳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이밖에 대표단은 통라꼽등어관, 미래과학자거리 등을 참관하고 금강산을 유람하였으며 평양교예극장에서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을 관람하였다.

체육경기들이 진행된다

7일(일요일) 오전 릉라인민체육공원 지상호케이장에서는 체불체육단과 와우도체육단사이 녀자선수들의 지상호케이 1급경기가 진행된다.

청소년선수권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다음주에 계속된다.

11일부터 청춘거리 수영경기관에서 녀자수구경기가 있게 된다.

씨름경기가 룡라도의 민족씨름경기장에서 11일부터 시작되며 권투경기는 13일까지 평성경기장에서 벌어진다.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대표단 도착

무라야마 도모히꼬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대표단이 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주체로 잇는 일조우호대표단 귀국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마쯔모또시민회의 부회장 고이와이 다까시를 단장으로 하는 주체로 잇는 일조우호대표단이 6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지배인으로 불리우는 참된 일군

금야은하피복공장 지배인 김성휘동무

우리! 평범하면서도 진정에 넘친 이 부름이 충정의 200일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전투장마다에서 뜨겁게 울리고있다.

언제나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심장에 불을 랗고 인민을 위한 길에서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아글타글 애쓰는 일군을 대중은 우리라는 소중한 부름을 담아 따르고 존경하는것이다.

금야은하피복공장 지배인 김성휘동무도 바로 그런 참된 일군들중의 한사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은 자기들을 아끼며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일군들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김성휘동무가 공장지배인사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1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공장의 려전을 잠을 때부터 20여년을 그는 로동자로, 부원으로, 부지배인으로 일해왔다. 그만큼 일터와 종업원들에 대한 그의 애착과 정은 남다른것이였다. 그러나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지배인의 모습은 단순히 그의 경력때문만이 아니다.

지금도 공장의 종업원들은 10여년전 어느날 밤 억수로 퍼붓는 비속을 헤치며 한 종업원의 집으로 향하던 지배인의 모습을 잊지 못해하고있다. 그날은 비가 몹시도 세게 내렸다.

하루일을 마감짓는 작업현장을 돌아보던 그는 퇴근시간도 잊은듯 기대를 열심히 돌리며 작업에 열중하는 한 로동자를 목격하게 되였다. 학교를 갓 졸업하고 엊그제 공장에 배치된 애젊은 녀성로동자였다. 언제나 생기발랄하여 작업반에 웃음꽃이 차넘치게 하는 처녀, 하루빨리 오랜 기능공들을 따라앞서겠다고 이에 악속에 잠자리를 옮긴 이악생이…

그날 지배인은 작업반장으로부터 처녀의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병으로 앓고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였다.

늘 언제나 웃음밭을 날리군 하던 처녀의 집에 이런 고충이 있다는 사실앞에서 지배인은 심한 자책으로 얼굴을 들수 없었다.

(종업원들의 마음속그늘도 가려볼줄 모르는 내가 무슨 지배인이란 말인가.)

김성휘동무는 그밤으로 처녀의 집을 향해 떠났다. 억수로 쏟아지는 비도, 허리를 치는 강물도 그의 발걸음을 멈춰세울수 없었다. 녀성로동자의 집에 들어선 지배인은 그의 집식구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바로 딸이 일하는 공장 지배인입니다.》

이날 김성휘동무는 당앞에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으로서 자신의 책임감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

그때부터 김성휘동무는 종업원들의 친부모구실을 다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바쳐왔다.

녀성들이 대부분인 공장의 특성에 맞게 편리하게 꾸려진 후생시설들에도, 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그 력을 톡톡히 보고있는 무난방온실과 노루, 비둘기 지어는 동물원에서만 볼수 있는 희귀한 공작새까지 보금자리를 편 휴식터에도 그의 남모르는 헌신이 깃들어있다.

공장에서 심어려 떨어진 야산기슭에 자리잡은 방목지에는 수백마리의 염소떼가 욱실거리고 해마다 고기와 젖생산량이 늘어나 종업원들의 생활은 나날이 더욱 윤택해지고있다. 먼 출장길을 갔다가도 몇명밖에 안되는 방목공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남먼저 찾아오는 일군, 남들이 다 쉬는 명절날에도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들을 배낭에 지고와서 방목공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군 하는 그를 종업원들은 우리 지배인이라고 정담아 불렀다.

그럴수록 김성휘동무는 마음의 량개를 더욱 조이군 하였다.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이 일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할것인가?)

그의 머리속에는 언제나 이런 생각이 꽉 차있었다.

생산을 틀어쥐고나가면서 그가 첫째로 힘을 넣은것은 결코 설비나 자재문제가 아니였다.

언제인가 작업현장을 돌아보던 김성휘동무는 급속으로 제작된 재단대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잠시후 지배인은 한 처녀로동자에게 겨울이면 재단대에서 찬 기운이 올라오지 않는가고 조용히 물었다. 처녀는 일하는 정신에 그런것을 느껴본적이 없다고 흔연히 대답하였지만 김성휘동무는 그것을 스쳐보낼수 없었다.

바로 그 작업현장에서 그의 로동생활이 흘렀다. 보람찬 로동의 나날과 더불어 년간계획완수자의 영예도 지니였고 지배인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오늘날 지배인의 시점에서 그 재단대들을 보니 마치 난생처음 보는 물건을 대할 때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김성휘동무는 초급당일군과 마주앉았다.

《언제인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용해공들이 리용하는 식당의 온도가 낮은것을 두고 그리도 가슴아파하시였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울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종업원들이 찬 재단대에서 일한다는것을 아시면 얼마나… 이 지배인의 마음이 금속과 같이 차거웠습니다.》

공장의 한 일군이 바른 생산계획이나 수행한 다음 나무로 교체하는게 어떤가고 의견을 내놓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종업원들을 위한 일인데 순간도 지체할수 없소. 그들을 위해 우리 일군들이 필요한거요.》

이렇게 되여 단 며칠동안에 금속으로 된 재단대들을 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되였고 종업원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을 위해 애쓰는 지배인의 숨결과 뜨거운 진정을 느꼈다.

진정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일군이 되기 위해 사색과 정열, 헌신의 구슬땀을 아끼지 않았다.

몸이 불편해하는 종업원을 위해 자신이 직접 그를 데리고 도와 중앙의 병원들에까지 찾아가 진단을 받게 하고 입원치료를 받게 한 이야기며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들이닥친 폭설로 한 종업원의 집이 심히 파손되였을 때에는 종업원들과 함께 달려가 단며칠만에 훌륭하게 다시 일떠세워준 이야기…

사업에서는 요구성이 높고 손락이 센 일군, 생활에서는 인정많은 아버지와도 같은 일군, 이것이 일군으로서의 김성휘동무의 모습이였다.

우리와 만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배인구실을 한다는것은 종업원들을 위해 속을 썩일줄 안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배인이라는 이 부름은 곧 일군들에 대한 대중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일군이 되자면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지배인,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듣군 하던 부름이다.

하지만 그 진정넘치고 가식이 없는 소박한 부름이 충정의 200일전투의 자랑찬 성과들과 더불어 우리의 가슴을 더욱 울려주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모든 승리와 성과들이 김성휘동무와 같이 종업원모두를 인민의 한사람한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멸사복무해나가는 참된 일군들이 걷는 수많은 발길들과 무한한 헌신의 땀방울을 떠나 절대로 생각할수 없기때문인것이다.

우리 지배인, 이 소중한 부름은 곧 창조와 혁신의 자양분이다.

오늘의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우리 당이 태워준 만리마를 타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치달아오를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다름아닌 이 부름속에 깃들어있는것이 아니랴.

본사기자 김성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태권도모국의 기상 더 높이 떨치리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 참가자들의 백두산에로의 답사길을 따라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체육인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온넋과 심장을 불태우며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창조해나가는 당의 미더운 체육전사, 조국과 인민의 자랑스러운 아들딸이 되여야 합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난시련을 과감히 뚫고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불굴의 투사가 될 불같은 열의에 충만된 천만군민의 대오가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끝없이 흐르고있다. 이 대오에는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조선태권도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하여 태권도부문의 일군들과 감독, 선수들도 있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로의 답사를 통하여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심장에 더욱 억척같이 새기고 민족의 넋과 기상을 만방에 떨쳐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영원히 빛내이자는것이 답사자들의 한결같은 의지였다.

답사대오에 차넘친 혁명신념

매일 아침 혜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충정의 마음을 바쳐가는 각계층 근로자들속에는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 참가자들도 있었다.

평양을 떠나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혜산에 도착한 날부터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분출시킨 평양시태권도선수단 일군들과 감독, 선수들이였다.

그들속에는 얼마전 혜산시에서 열렸던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에서 몸무게급에 관계없이 진행된 태권도녀자맞서기강자경기 우승컵과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도 있었고 해당 몸무게급 태권도개인맞서기경기의 우승자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이번 경기대회에서 이런 불같은 의지가 차넘치는 가운데 시작된 백두산에로의 답사길이였다.

답사기간 백두밀림에서 떠오르는 아침해를 제일먼저 맞으면서 훈련열의를 고조시킨 평안북도태권도선수단 감독, 선수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답사대오의 혁명적기상을 더해주었다.

감독 서영일동무가 담당한 남자선수들은 이번 경기대회 몸무게급별 태권도개인맞서기경기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동시에 태권도단체맞서기경기에서는 우승후보팀으로 주목되던 강팀을 보기 좋게 누르고 결승경기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욱 좋은것은 단장 어인호동무와 감독들이 답사기간에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선수들을 튼튼히 무장시켜 민족의 넋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는 세계적인 태권도강자로 준비시키겠다는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는것이였다.

우리는 답사길에서 강원도태권도선수단 부원 구현숙동무에 대해서도 알게 되였다.

손녀까지 있는 할머니인 그는 비록 나이가 많고 불편한 몸이지만 선수단에 있을 때 훈련과 경기조건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애쓰던 그 열정으로 이번 답사기간에 항일유격대의 작식대원들처럼 감독, 선수들속에서 제기되는 생활상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여 집단의 존경을 받고있었다.

함경북도태권도선수단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이 다 답사에 참가한 가족에 대한 자랑도 있었다.

감독인 아버지에게서 태권도를 배운 리일룡선수가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 해당 몸무게급 태권도개인맞서기경기에서 순위권에 든 후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다고 한다.

조선의 태권도인이라면 백두산을 알아야 한다고,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지녀야 태권도강자로 자라날수 있다고.

그렇다.

우리의 태권도인들은 백두산에로의 답사를 통하여 백두의 기상과 넋이 무엇인가를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였으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태권도모국의 존엄과 영예를 끝없이 떨쳐갈 굳은 신념을 간직하였다.

필승의 신심을 새겨주는 혁명의 성산

답사길을 이어가는 과정에 태권도선수들은 백두대지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는 돌격대원들의 정신세계와 들끓는 현실도 직접 체험하면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의 위력이 얼마나 무한대한것인가를 똑똑히 깨달을수 있었다.

답사대오가 혜산—삼지연넓은청길건설장을 지나는 과정에 답사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온넋을 불태우며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해가는 전투원들의 로력적위훈에 대해 목격하게 되였다.

삼지연에 도착한 태권도선수들이 시범출연을 진행하게 되여있는 중요대상건설전투장에 이르렀을 때까지도 비는 멎지 않고 계속 내렸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야외에서 시범출연을 진행하는 조건에서 일정을 변경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불리한 일기조건에도 아랑곳없이 전투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건설자들, 이들의 정신세계에 고무된 태권도선수들은 시범출연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비가 쉬임없이 내리고 부상까지 당한 조건에서도 태권도선수들은 마지막까지 시범출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삼지연에서 진행된 시범출연은 건설자들에게는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고 태권도선수들에게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깊이 심어준 중요한 계기였다.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서 태권도선수들이 받은 충격은 더욱 컸다.

우뚝 솟아있는 언제와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은 백두산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백두청춘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이번 경기대회 여러 경기들에서 특기를 잘 살려 전문가들의 절찬을 받은 황해북도태권도선수단의 하금광선수, 그는 동생인 하금남선수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언제우에서 이렇게 맹세다졌다.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모진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내나라의 만년재부를 쌓아올린 백두청춘들의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 기어이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이는 세계적인 태권도강자가 되자고.

끓어오르는 격정과 환희를 안고 태권도감독, 선수들은 드디여 백두산에 올랐다.

누구나가 환성을 터쳤다.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선군조선의 기상이 용솟음쳐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에 오른 크나큰 감격과 더불어 그들의 가슴마다에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언제나 마음을 가다듬으며 한생을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살며 투쟁하려는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맥동쳤다.

이번 경기대회 태권도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의 책임감독 박충성동무와 감독 리은주동무는 부부간이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른 환희에 넘친 부부감독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던가.

《꿈속에서도 그리던 백두산에 오르니 심장이 막 터지는것만 같애요.》

《나도 같은 심정이요. 백두산에 더 빨리 오르지 못한것이 후회되오. 나도 세계패권자들을 키울수 있다는 신심이 막 솟구치누만.》

백두산에서 진행된 맹세모임을 통하여 태권도선수들과 감독, 일군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길에서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영원히 빛내일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였다.

맹세모임에 이어 많은 태권도인들이 기백있게 틀을 수행하였다.

그처럼 오르고싶어하던 혁명의 성산에 올라 백두의 정기를 가슴에 안고 박력있게 틀동작들을 수행하면서 한마음으로 터치는 출연자들의 힘찬 웨침이 백두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그들속에는 로력영웅, 인민체육인도 있었고 10대의 소년도 있었다. 이들의 의지는 하나같았다.

피끓는 심장을 다 바쳐 백두산민족의 슬기와 필승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백두밀림의 울부짖는 눈보라와 항일성전의 총소리를 들으시며 성장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서 답사자들은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가는 길에 우리 조국의 최후승리도, 태권도모국의 영원한 승리도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게 되였다.

답사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실지체험을 통하여 금주고도 살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받아안은 우리 태권도인들이였다. 혁명의 성산과 더불어 그들의 심장은 더욱 커졌다.

우리 조국의 영원한 승리의 상징인 성스러운 백두의 넋과 기상, 죽어도 버리지 않을 혁명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한 태권도부문의 일군들과 감독, 선수들은 지금 백두산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 세계를 뒤흔드는 선군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창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킬 드높은 열의로 가슴을 끓이고있다.

이렇듯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천만군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하여야 할 숭고한 혁명정신이며 이 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오르고오르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태권도모국의 승리의 앞길을 더욱 환히 밝히며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높이 솟아 밝은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지혁철

영원히 높이 울려퍼질 충정의 노래, 승리의 노래

1970년대에 창작된 뜻깊은 노래들을 들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시대를 선도하고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서 혁명적인 노래가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그 격동적인 시기에 창작된 뜻깊은 노래들이 오늘날에도 영원한 생명력을 과시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충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 《우리는 천위대 돌격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온 나라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시대를 울리는 이 뜻깊은 노래들을 힘차게 부르며 위대한 당의 령도를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충직하게 받들어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던 1970년대의 날과 달들을 돌이켜볼수록 우리의 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끓어오른다.

혁명적인 노래는 투쟁의 대오에 울리는 진군가이며 시대의 행진곡이다.

우리 당력사에 뜻깊게 새겨진 1970년대에 얼마나 많은 명곡들이 창작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던가.

1974년 10월 나라의 강철전선을 지켜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간 어느 한 중앙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은 노래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를 불렀다. 공연이 끝난 후 로동자들과 예술인들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고갔다.

《더 많은 강철을 뽑아줄것을 부탁합니다.》

《념려마십시오. 어버이수령님과 당을 위해서라면 이 한몸을 서슴없이 바치렵니다. 오늘도 500%는 문제없습니다.》

이렇듯 다함없는 충정으로 세차게 고동치는 심장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예술인들의 고무에 더 큰 힘을 얻은 로동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들어 강철전선을 지켜선 강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다시한번 과시할 불같은 결의를 안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같은 해 6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시대의 명곡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를 가지고 결의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에서 김철의 로동계급은 명곡의 구절구절에 있는것처럼 준엄한 날에도 행복한 나날에도 오직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따라 억세게 전진하며 그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워갈 결의를 심장으로 다짐하였다.

그런가 하면 1975년 12월 김력의 막장에서 울려퍼진 《우리는 천위대 돌격대》의 노래소리는 광부들의 가슴가슴을 충정의 열기로 부글부글 끓게 하였고 5일은 심히 걸린다고 하던 막장복구를 단 8시간동안에 끝내는 기적도 창조하게 하였다.

이렇게 노래의 위력은 비할바 없이 컸다.

실로 시대를 격동시키는 명곡들, 혁명의 노래, 승리의 노래의 힘찬 메아리와 더불어 기적과 위훈창조로 충만된 새 소식들이 땀 곳곳에서 끊임없이 전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가 창조된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였다.

수십년전 용광로앞에서, 채탄로앞에서,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울려퍼지던 시대의 진군가들이 오늘날 만리마속도창조의 장엄한 대진군길에서도 변함없이 높이 울려퍼지며 천만군민의 심장을 더더욱 뜨겁게 달구어주고있다.

노래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부강조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안아온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기어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굳은 신념을 백배로 다져주고있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부르며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의 해방을 안아온 선렬들처럼,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가렬했던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의 7.27을 안아온 1950년대 용사들처럼 충정의 노래를 변함없이 높이 부르며 당을 억척같이 받든 전세대들의 위훈이 오늘도 우리를 최후승리에로 부르고있다.

…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따라
영원히 대를 이어 우리는 가네
심장의 끓는 피 혁명에 바쳐
일편단심 충성의 길 가고가리라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높이 울려퍼질 충정의 노래, 승리의 노래들과 더불어 위대한 당을 따라 만리마시대에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우리 인민앞에는 끝없이 번영할 미래가 펼쳐져있다.

강효실

평범한 로동자가 내놓은 창안품

지적제품전람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최국철동무의 생활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현대화, CNC화수준을 높이고 나라의 경제구조를 완비하여야 합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염색종합직장에서 일하는 최국철동무는 얼마전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된 지적제품전람회에 4원색에 의한 립체남염공정화립과 관련한 연구성과자료를 출품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로동자들중의 한사람이다.

과학자들과 나란히 단연 순위권에 입선한 그의 성과를 두고 해당 부문 일군들도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

주체98(2009)년 7월 평양방직공장(당시)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염색종합직장도 돌아보시면서 남염천이며 이불등천의 색깔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자자구구 새길수록 최국철동무는 문양도 더 좋고 색깔도 더 고운 천을 만들고싶은 열망에 휩싸였다.

군사복무후 공장로동자로 배치받았던 10여년전 당조직에서는 그를 공장대학으로 떠밀었다. 또 새것에 민감한 그가 콤퓨터강습에도 여러차례 참가하여 높은 프로그람작성능력도 소유할수 있게 적극 도와주었다.

이렇듯 언제나 따사롭게 비쳐는 당의 손길아래 공장에서 일하면서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온 그였다.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싶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자연의 풍부한 색 등을 그대로 남염천에 담을수 있을가.

사색의 줄기를 펼쳐가던 그는 문득 공장에서 리용하던 색인해기에 눈길을 돌리였다. 4가지 색을 배합하여 많은 가지수의 색깔로 인쇄할수 있는 색인해기의 원리를 리용한다면?!

기발한 착상이였다. 탐구의 세계는 끝이 없었다. 분색을 위한 프로그람도 자체로 작성하였다.

김명수작염반장을 비롯한 집단의 방조밑에 자기의 착상을 리용하여 제품도 뽑아보았다. 여러가지 부족점은 있었으나 가능성이 있다는 담보를 찾아낸것으로 하여 무등 기뻤다.

그러던 주체102(2013)년 10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의 앞길을 더욱 환히 열어주신 그 믿음, 그 사랑은 최국철동무의 탐구의 세계에 세찬 격랑을 일으켰다.

공장일군들이 그가 진행하는 연구에 필요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을 받들어 공장에서 꾸려놓은 과학기술보급실은 그대로 비약의 새 날개였다.

이곳에서 그는 세계적인 남염발전추세도 환히 꿰뚫게 되였고 자기의 연구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기도 하면서 군사복무시절의 그 정신으로 전진또 전진하였다. …

지적제품전람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감에 대해 묻는 우리에게 최국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올해신년사와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접했을 때 저는 온 우주를 얻은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평범한 로동자들도 과학기술강국건설의 전초병으로 불러주시는것만 같아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터가까이에는 과학기술보급실이 생겨나고 집가까이에는 과학기술전당이 솟아오르고 집단의 힘이 있는데 정말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원수님 가르쳐주신대로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기어이 이 손으로 세계적인 명제품, 명상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강좌장이 언제인가 이제는 론문을 쓸 때가 되지 않았는가고 하자 최국철동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우리가 만든 새 제품이 인민들에게 가득 안겨지고 그로 해서 우리 원수님께 기쁨드리게 될 때 로동자인 나도 당당히 론문을 쓰겠다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힘찬 투쟁과 더불어 평범한 로동자들도 이렇듯 높은 경지에로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손길이 얼마나 따사로운가.

그 손길아래 과학기술이라는 비약의 보검을 더욱 확고히 틀어쥔 우리 로동계급의 힘은 천배, 만배로 분출될것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의 날을 더욱 앞당겨올것이다.

이것이 과학기술로 비약하는 조국의 슬결이 그대로 맥박치는 한 로동자의 생활을 통해서 다시금 절감하게 되는 시대의 진리이다.

본사기자 오철룡

경제적가치가 큰 참대버드나무(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무를 많이 심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빨리 자라고 경제적가치가 큰 참대버드나무를 많이 심자면 양묘장에서 나무모기르기를 잘하여야 한다.

참대버드나무모발은 해빛이 잘 들고 물원천이 가까우며 물이 잘 빠지는 곳에 정한다.

모래미흙땅이 제일 좋다. 산성토양은 개량해야 한다.

이랑은 동서방향으로 짓는다. 심을가지를 이랑에 한줄로 심는 경우 줄사이거리는 60㎝, 그루사이거리는 20~30㎝ 되게 한다.

한이랑에 두줄로 심는 경우 이랑의 밑부분너비는 60㎝, 이랑사이거리는 80㎝로 보장한다.

비탈진 곳에서는 이랑을 등고선방향으로 지어 토양과 물의 류실을 막아야 한다.

비료주는 땅은 토양의 류형과 지력수준, 심는 밀도, 지하수높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참대버드나무는 빨리 자라는 나무이므로 영양에 대한 요구성이 높다.

이것을 고려하여 정보당 유기질비료 20~30t 또는 흙보산비료 5~6t, 뇨소비료와 파석을 각각 300㎏정도 준다. 심기전에 토양소독을 하는것이 좋다.

심을가지로는 잎이 떨어진 다음부터 움이 트기 전까지 충분히 목질화된 1년생을 잘라서 리용한다. 길이는 12~15㎝(보통 12㎝), 굵기는 1~1.5㎝정도가 좋다. 자름면은 매끈해야 한다.

심을가지는 심기 1~2일전에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에 잠그어 물을 충분히 빨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심기 전에 뿌리내림촉진제처리를 하면 좋다. 심기 전까지는 낮은 온도에서 마르지 않게 보관하였다가 3월 하순~4월초에 심는다.

심을 때에는 가지의 웃부분이 1~2㎝정도 보이게 흙을 덮고 그 둘레를 밟아준다. 물을 충분히 주고 3~4일 지나서 다시 물을 주어 가지가 마르지 않도록 한다.

밑비료는 심은 가지의 사이에 주는것이 좋다.

심은 다음에는 10~15일에 한번씩 김을 매주고 물도 제때에 주어야 한다.

6월부터 8월사이에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모가 매우 빨리 자라므로 재배관리에 힘을 넣어야 한다.

심은 가지가 30㎝정도 자라면 제일 곧추 자란 굵은 가지 한대를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준다.

1.5m정도 자라면 웃부분의 80㎝정도, 2.5m정도 자라면 웃부분의 1.5m정도를 남기고 아래부분의 잔가지들은 잘라준다.

이렇게 하면 빛과 통기조건이 좋아지고 나무모가 매끈하게 자란다. 잎을 너무 잘라내면 빛합성능력이 낮아진다.

잘라낸 잔가지는 삽목하여 리용한다.

심을가지의 채취량을 늘이기 위하여 겨울 또는 이른봄 움트기 전에 나무를 땅면과 거의 같은 높이에서 잘라준다. 새로 나오는 가지가운데서 굵은 가지를 2~3대 키우고 나머지는 자른다. 이런 방법으로 농장들에서 활창대감을 마련할수 있다.

토양조건과 자라는 상태를 보고 덧비료를 준다. 1차덧비료는 30㎝정도 자랐을 때, 2차덧비료는 6월말~7월 상순 장마전에, 3차덧비료는 8월 상순경에 준다.

1차덧비료로는 정보당 뇨소비료 100㎏, 파석 150㎏을, 2차덧비료로는 뇨소비료 150㎏, 파석 150㎏을, 3차덧비료로는 카리비료 100㎏을 준다. 질소비료를 늦게 주면 헛자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생물활성비료 등을 잎덧비료로 주면 좋다.

참대버드나무모기르기에서 중요한것은 건강하게 키워 병충해를 미리막는것이다.

한해동안 키운 참대버드나무는 잎이 떨어지고 겨울잠에 들어간 다음 베여 겨울기간 얼지 않도록 잘 보관하였다가 다음해 봄에 12~15㎝ 되게 잘라서 심을가지로 쓴다.

국가과학원 과학기술교류소 연구사 교수 박사 박우일

최근 기상상태와 날씨전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적인 큰틀예보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기상예보를 정확히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 우리 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의 여름철대기순환은 례년에 없는 특이한 상태를 나타내고있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 장마는 여름철에 북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북서태평양고기압의 서쪽변두리를 따라 흘러드는 적도와 아열대수역의 덥고 습한 공기가 중위도의 찬공기와 접촉하여 장마전선을 형성하면서 일정한 기간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것이 보통이였다.

이 장마전선은 동아시아의 남부지역에서 보통 6월초에 형성되여 북서태평양고기압이 강화되는데 따라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우리 나라에는 대체로 7월 중순경에 놓이였다.

그러나 최근 북서태평양고기압이 북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띠베트고기압이 강화되여 그 세력을 북동쪽으로 확장하면서 우리 나라 북부지방을 포함한 중국동부평역까지 영향을 주고있다.

이로 하여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올라오지 못하고 대륙의 가열된 공기가 흘러드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고있다.

올해의 특이한 여름철대기순환마당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장마는 남부지방에서가 아니라 북부지방에서부터 평년보다 늦어져 7월 22일에야 시작되였다. 장마비치고는 비교적 적은 비가 두차례 내린 후 7월 28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은 미미해지고 우리 나라에서는 무더운 날씨가 위주로 되면서 대기불안정으로 곳곳에서 산발적인 소낙비가 내리는 장마중단기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날씨상태는 앞으로 8월 상순까지 지속될것으로 보며 기온은 7월말보다 더 높을것이 예견된다.

8월 중순경에 가서 장마전선이 다시 형성되면서 한두차례 비가 내릴것이 예견되는데 여러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와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올해 장마는 8월 하순경이면 끝날것으로 보아지는데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사이에 장마전선에 의한 강수는 없겠으나 저기압 혹은 태풍의 영향으로 대부분지방에서 한두차례 비가 내릴것이 예견된다. 또한 8월과 9월에 비는 며칠간 지속적으로가 아니라 대체로 주기적으로 내릴것으로 보고있다.

태풍이 동아시아지역의 전반적인 대기순환에 주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앞으로 태풍의 활동에 따라 날씨가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예보대 대장 최광국

전화의 나날 발휘된 조국수호정신을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 심어주고있다.
—청진시 포항구역 수원1동 김종수전쟁로병의 가정에서— 본사기자 찍음

체육으로 흥하는 일터

삭주식료공장의 일군들이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종업원들이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대중체육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종업원들에게 깊이 인식시켜 체육사업에 대한 그들의 열의를 더욱 높이고있다.

한편 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중률동체조와 건강태권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활동을 매일 정상화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공장에서는 배구장, 롱구장들을 훌륭히 꾸리고 작업의 쉴참은 물론 명절과 일요일에도 자주 체육경기를 조직하여 종업원들의 체육열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일군들이 이 사업에서도 앞장에 서고있다.

얼마전 휴식일에 진행된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로 하여 온 공장이 흥성이였다.

공장안에 차넘치는 체육열풍과 더불어 군적인 체육경기들에서도 좋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대중체육활동은 집단안에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을 더해주어 종업원들로 하여금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하고있다.

대중체육활동으로 흥성이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은 삭주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더 큰 혁신적성과를 안아올 일념안고 지금도 폭풍쳐 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전쟁의 먹장구름을 밀어내고 평화를 수호하신 탁월한 령도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치려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소동이 극히 엄중해지고있는 준엄한 이 시각에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쑤들의 침략적도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사회주의강국의 명마루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선군조선의 강대한 힘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게 되는 지금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선군령장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지고있다. 적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책동으로 하여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였던 지난해 8월, 그 최악의 역경속에서 조국과 민족앞에 닥쳐왔던 위험천만한 사태를 평정하시고 무전무혈의 쾌승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령장의 지략과 담대한 배짱, 탁월한 령군술로 전쟁광신자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제압하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온 겨레는 솟구치는 격정과 한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은 특출한 정치실력과 함께 강의한 신념과 배짱, 무비의 담력을 지닌 위인을 령도자로 모실 때라야만 담보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천하를 쥐락펴락하시며 제국주의강적들을 무릎꿇게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배짱과 담력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시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8월 조선반도정세는 준엄하고 첨예하였다.

지난해초부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추가제재》를 선포하고 《북붕괴》악설을 내뱉으며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 미쳐날뛴 미국은 그해 8월에 들어와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해나섰다. 당시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병력과 최신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악명높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에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였다.

한편 상전의 반공화국적대행위에 기세가 오른 괴뢰호전광들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우리를 겨냥한 각종 도발에 열을 올리였다. 리성을 잃은 괴뢰군부깡패들은 나중에는 그 무슨 《북포탄발사》사건이라는것까지 꾸며내고 그에 《대응》한다고 고아대면서 우리의 신성한 령토에 수십발의 포탄을 란사하는 위험천만한 망동을 부리였다. 이것은 있지도 않은 《북의 도발》을 운운하며 북남사이의 무장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을 북침전면전쟁으로 확대하려는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행위였다. 괴뢰들의 이런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는 교전직전의 최극단상태에로 치닫고 민족의 운명은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였다. 세계가 불안과 우려를 안고 조선반도사태를 지켜보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긴급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은 온 행성을 들썩다놓았다.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된것이다. 그것은 남조선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망동을 단호히 제압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중대결단이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명령을 심장으로 새겨안은 천만군민은 도발자, 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심을 안고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에 용약 떨쳐나섰다.

적들의 군사적위협소동에 주저없이 반격을 가하며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받아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장으로서의 담대한 기상과 배짱앞에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던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은 혼비백산하였다. 적들속에서는 북의 이런 대응방식은 지금껏 본적이 없는것이라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세계의 출판보도물들은 《온 세계가 또 한분의 백두령장을 보았다.》, 《결사의 조국수호정신, 치솟는 보복의지의 분출》, 《조선 미국과 남조선에 무자비한 타격 경고》 등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과 그이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루고 조국수호의 성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에 대해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자비한 공격기상과 무서운 타격력앞에 기가 질린 적들은 우리가 주동적으로 제안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 응해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그 결과 쌍방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한데 기초한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였다. 조선반도에 사납게 밀려오던 전쟁의 난파도는 이렇게 가시여졌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무비의 담력과 천출명장의 예지, 탁월한 령군술로 침략자들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시고 백전백승의 참화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구원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온 겨레가 한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이 천명되였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도전을 영원히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철옹성같이 수호하며 하루빨리 삼천리강토우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결심이며 절대불변의 의지이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와의 대결에서 당한 거듭되는 참패의 교훈을 망각하고 반공화국《제재》소동을 제단식으로 확대하면서 새 전쟁도발책동에 날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그러나 원쑤들의 그 어떤 《제재》와 군사적도발도 우리를 놀래울수 없다.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고 무적의 군사적억제력을 갖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함부로 덤벼든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밑에 다지고다져온 군사적위력을 총폭발시켜 원쑤들을 씨도 없이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수치와 창피도 모르는 얼간이짓

괴뢰들이 수치와 창피도 모르고 사타구니에서 불이 날 정도로 외세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우리에 대한 《제재》강화와 군사적압박을 애걸하는 꼴은 정말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얼마전 제3차 남조선미국고위급전략협의에 참가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을 행각한 청와대안보실 1차장 조태용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효률적인 대북제재》를 구걸하며 상전의 바지가랭이에 바싹 매달리는 추태를 부리였다. 한편 괴뢰군부의 우두머리들도 여러 나라들을 싸다니며 그 무슨 《북핵위협》과 《도발》에 따른 군사적압박공조를 청탁하였다. 그야말로 괴뢰패당이 하는것이란 입만 벌리면 《북핵위협》타령뿐이고 외세의 옷자락만 붙들면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해달라는 역겨운 구걸질뿐이다. 제 처지도 모르고 너절한 악습을 되풀이하는 얼간망둥이들의 가련한 몸부림이라 해야 할것이다.

지금 괴뢰들의 처지는 제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인심을 제대 잃은 가련한 신세이다. 청와대의 암독사가 고집스럽게 강행하는 《싸드》배치놀음은 대내외적으로 세찬 항의와 규탄의 격랑을 불러왔고 역적패당은 그속에서 허우적거리고있다. 더우기 조선반도주변나라들은 그 무슨 《균형외교》를 한다면서 추파를 던지던 박근혜패당이 미국의 특등주구로서의 본색을 드러내며 끝끝내 《싸드》배치를 선언하자 괴뢰들을 로골적으로 냉대하고 멸시하며 따돌리고있다.

이로 하여 국제적고립이 날로 심화되자 궁지에 몰린 괴뢰패당은 점점 맥빠져가는 반공화국《제재》공조를 유지해보려고 미국을 비롯한 상전들에게 더욱 바싹 달라붙고있는것이다.

가관은 가련한 고자쟁이들이 여기저기 싸다니며 동족을 해쳐달라고 목이 쉴 지경으로 짖어대고 온갖 요사를 떨며 비력질하지만 망신과 조소밖에 차례지는것이 없다는데 있다. 박근혜패당이 그토록 소란스럽게 불어대는 《북비핵화》니, 《대북제재》니 하는 나발은 그 누구에게나 성가신 소음으로 된지 오래다.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기 위해 미쳐날뛰는 역적무리를 무자비하게 족랑쳐버릴 우리의 단호한 의지앞에 언제 땀줄이 끊길지 알수 없어 안달복달하는자들의 허튼 나발질에 누가 귀를 기울인단 말인가.

이렇게 돌아가며 골탕을 먹고 개코망신을 당하면서도 괴뢰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저기를 정황없이 싸다니며 동족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구걸하고 북침을 위한 군사적공모결탁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있으니 참으로 가련타 하지 않을수 없다. 인민들의 증오와 버림을 받고 국제사회로부터도 처참하게 냉대받는 주제에 누구를 어쩌보겠다고 분수없이 놀아대는 그 꼴이 얼마나 궁상스러운가.

박근혜패당이 비참한 파멸을 당할 시각이 다가오는 지금도 헛된 망상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 외세의 옷섶에 매달리며 동족압살을 극성스럽게 청탁하는것이야말로 부질없는짓이다. 외세를 할애비처럼 섬기며 반공화국대결공조를 청탁하다 닳꽃핀 개 을 쳐다보는 꼴이 되군 하였던 선임자들의 망신스러운 전례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그 미련하고 승산없는 놀음을 계속 우직스럽게 해대는 괴뢰패당을 내외가 어찌 조소하지 않겠는가.

민족의 존엄이고 자랑인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외세의 힘을 빌어 감히 제거하고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는 괴뢰패당의 망동은 추호도 용납할수 없으며 그 죄악은 반드시 천백배로 결산되게 될것이다.

괴뢰들은 외세와 공조하여 우리 공화국과 대결하며 참패만을 거듭한 저들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에 아부굴종하며 동족을 해치기 위한 반민족적인 공조놀음을 벌려놓았지만 언제 한번 빛을 본적이 있었는가. 괴뢰패당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실현의 앞잡이가 되여 동족압살에 기승을 부리였지만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앞길을 결코 가로막지 못하였다.

그러니 쓸데없는 놀음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제 낯짝에 흙탕칠하는 얼간이짓을 그만두고 력사의 준엄한 심판이나 기다리라는것이 우리의 대답이다.

허 영 민

미제가 조선반도유사시를 노리고 악명높은 핵전략폭격기 《B-1B》를 전진배치

【평양 8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대조선적대행위의 도수를 계단식으로 강화하고있는 미제가 8월 6일 악명높은 핵전략폭격기 《B-1B》를 괌도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하였다.

미제는 이러한 핵전쟁살인장비의 전진배치가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것이라고 뻐젓없이 공개해대고있다.

이미 미제는 그 무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균형》과 《동맹국에 대한 군사력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이미전부터 대조선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에 핵전략폭격기 《B-52H》를 상시적으로 주둔시켜오고있었다.

바로 이곳에 미제가 핵전략폭격기 《B-1B》를 새롭게 전진배치한것은 1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지금 적들은 핵전략폭격기 《B-1B》가 현재 배치되여있는 《B-52H》보다 속도는 1.5배, 핵목탄적재량은 2배이며 유사시 2~3시간안에 조선반도상공에 날아들어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할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고있다.

이러한 핵전력증강책동은 미제가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기정사실화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폭로해주고있다.

올해에만도 미제는 피뭐니없는 《북도발》과 《위협》을 내들고 《3대핵타격수단》과 《6대핵심전력》을 총투입하여 사상 류례없는 핵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여왔다.

미제침략군이 특수작전무력과 핵전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들을 수시로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이밀고 제2의 6.25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극히 모험적인 실동연습들로 날과 달을 보내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핵전략폭격기 《B-1B》를 괌도에 전진배치한것은 핵전쟁살인장비들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가로타고앉아보려는 미제의 흉악한 책동이 더욱더 무모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날로 로골화되는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은 조선반도정세를 통제불능의 파국적국면에로 몰아넣고있다.

우리 군대는 남강도 미제의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을 날카롭게 주시하고있다.

정의의 핵보검을 틀어쥔 우리 군대는 명령만 받으면 핵전략폭격기 《B-1B》를 비롯한 미제의 모든 첨단전쟁장비들을 순식간에 파철더미로 만들어버릴것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도사리고있는 미제침략군의 대조선침략기지들을 모조리 불바다속에 처넣을것이다.

침략자 미제는 함부로 정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단 평

사 형 선 고

얼마전 《새누리당》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반역당의 떨거지들이 《싸드》배치결정에 분노한 민심을 탈패할 심산밑에 경상북도 성주를 찾았다. 그런데 군청앞에서 그들을 맞이한것은 《《싸드》한성 〈새누리당〉》,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쓴 댕기가 드리운 2개의 화환이였다. 보다 희한한 광경은 그 다음에 펼쳐졌다. 상복을 입은 성주군 주민들이 상여를 메고 처량한 곡소리를 내며 《장의식》을 벌려놓은것이다. 그들속에서는 《《싸드》배치 철회하라》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괴뢰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성주에서 큰 봉변을 당한것이 엊그제인데 그것을 벌써 잊고 분노의 땅에 코를 들이밀었으니 어찌 혼쭐이 나지 않을수 있겠는가. 반역당패거리들이 성주군 주민들에게 먹살을 잡히고 관속에 끌려들어가지 않은것만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성주군 주민들이 《새누리당》짓들을 상대로 벌려놓은 《장의식》행사는 사실상 박근혜역도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괴뢰역도가 미국상전의 더러운 앞잡이가 되여 《싸드》를 한사코 끌어들이려고 날뛰면서 자신들에게 재난과 고통을 강요하는데 이런 천하의 역적을 살려둔다는것이 말이나 되는가.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는 말이 있다.

오늘은 비록 성주군 주민들이 반역패당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지만 래일은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이 모두가 들고일어나 역적무리들을 가차없이 징벌하게 될것이다.

성주에서 울려퍼진 곡소리는 민심을 잃은 박근혜패당의 비참한 앞날을 예고하고있다.

심 철 영

친미매국범죄를 가리우기 위한 술책

지금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함성이 터져나오고있다. 로동계와 학계,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가 괴뢰당국의 매국배족행위에 항거하여 들고일어났다. 이것은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겨레의 운명을 위협하고 남조선을 외세의 대결장으로 섬겨바치는 박근혜패당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폭발이다.

궁지에 몰린 괴뢰집권세력은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적노한 민심을 누잠재워보려고 발광하고있다. 얼마전에도 괴뢰패당은 《싸드》배치는 《북의 핵, 미싸일 위협》으로부터 《민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괴뢰들이 《북의 위협》을 운운하며 《싸드》배치소동을 정당화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항거기운을 가로막고 저들의 추악한 사대매국적정체를 가리워보려는 파렴치한 여론기만행위이다. 사실상 괴뢰패당이 들고나온 《북의 위협》설은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는 억지주장이다. 내외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우리의 핵억제력은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방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은 우리 공화국을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싸드》배치놀음을 정당화해나서고있다. 이것이 미국에 아부굴종하며 상전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여 동족을 한사코 해치려는 흉심의 발로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싸드》를 끌어들여 동북아시아지역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야망을 충족시켜주고 그 대가로 반공화국압살공조를 더한층 강화하려는것이 괴뢰패당의 속심이다.

문제는 괴뢰들이 《북의 위협》에 대처한 《싸드》의 《군사적효용성》에 대해 아무리 요란하게 광고해도 그것이 통하지 않고있다는데 있다. 지금 남조선과 해외의 많은 언론들, 전문가들이 《싸드》로는 《북의 미싸일을 막아낼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괴뢰패당이 이런 목소리들에 귀를 틀어막고 《민중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니, 《군사적효용성》이니 하고 생억지를 부리는것은 미국의 전략적리익을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운명을 철성판우에 올려놓은 저들의 용납 못할 반민족적죄악을 감싸기 위한 술책이다.

《싸드》의 전자기파가 인체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하루아침에 《싸드》배치지로 결정되여 날벼락을 맞은 경상북도 성주군의 주민들이 괴뢰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여러 시간동안이나 포위하고 밤알에 메를 안긴것도 그때문이다.

더우기 남조선인민들의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괴뢰들이 경상북도 성주를 《싸드》배치지로 정한 목적이 《민중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는 사실이다. 《싸드》의 배치지가 성주라는 사실은 미국이나 괴뢰당국이 평택, 군산 등에 있는 주요미군기지들의 보호에만 신경을 쓰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더우기 《싸드》의 지휘권한이 전적으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에게 있는 조건에서 괴뢰패당이 떠드는 그 무슨 《민중의 안전》이란 상상조차 할수 없다. 유금이너성을 야수적으로 강간학살하고 나어린 효순이와 미선이를 장갑차의 육중한 무한궤도로 가차없이 짓아뭉갠 극악무도한 살인마들이 남조선인민들을 보호한다는것이 말이나 되는가.

박근혜패당의 《싸드》배치소동으로 남조선인민들은 그야말로 재난을 피할수 없게 되였다. 《싸드》배치로 하여 남조선은 외세의 치렬한 대결마당으로 전락되게 되였으며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미국이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면 그에 대한 주변대국들의 반발도 강해지게 되며 남조선은 기필코 대국들간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각축전장으로 될것이다. 앞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대국들간의 우발적충돌이 일어날 경우 《싸드》가 배비된 남조선이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싸드》라는 미국의 전쟁피뢰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대대손손 대를 물고 살아온 생존터전을 잃고 한지에 나앉게 되였다. 그러니 남조선인민들이 분노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싸드》야말로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화근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재앙거리인 《싸드》를 끌어들이려고 발광하는 박근혜역적패당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박근혜패당이 《북의 위협》이니 뭐니 하며 아무리 나발질해도 통할수 없다. 괴뢰들은 그 어떤 궤변과 권모술수로써도 저들의 추악한 친미사대적이며 반민족적인 정체를 가리울수 없으며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인민들의 《싸드》배치반대투쟁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인민들의 운명과 리익을 서슴없이 해치면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희세의 매국역적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된다.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배치반대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가증스러운 반역무리들에게 징벌의 철추를 안겨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 효 진

반테로투쟁을 강화할 립장 천명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가 7월 31일 군대절에 즈음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반테로투쟁을 강화할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성명은 수리아군이 테로와의 싸움에서 가장 능력있는 군대이며 나라와 지역에서 안전과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기둥으로 남아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수리아는 조국력사에서 중요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고 하면서 모두가 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공업화추진의 필요성 강조

나미비아대통령 하게 게인고브가 7월 30일 잠비아에서 진행된 국제농업 및 상업전시회에서 연설하면서 아프리카나라들에서 공업화를 추진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공업화는 대륙나라들이 자기의 자연부원을 최대한 리용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함으로써 빈궁을 해소하고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필수적문제로 나서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지역의 다각적인 경제발전을 실현하는데서 중심고리로 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대륙나라들이 경제적통합을 다그쳐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현대적인 특수함선 진수

짜자흐스딴국방성이 최근 현대적인 특수함선을 진수시켰다고 밝혔다.

길이가 42m인 이 함선에는 잠수병들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구별하며 확정할수 있는 장비와 현대적인 통신 및 항해장비가 갖추어져있다.

국내에서 건조된 이 함선은 까스삐해에서 여러 시험들을 거친 후 취역하게 되며 항구의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수중을 통한 파괴암해행위에 대처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협 조

이란과 그루지야가 7월 26일 에네르기분야에서 호상 협력할데 관한 문건에 조인하였다.

최근 이란과 파키스탄이 국방분야에서의 쌍무적협조를 더욱 발전시키고 반테로투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어린이영양실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가나에서 최근 어린이영양실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정부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 결과 지난 20년동안에 만성적인 어린이영양실조자수가 23%로부터 19%로 줄어들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어린이사망자중 24%가 영양실조와 관련되여있다고 한다.

반테로투쟁 강화

알제리에서 반테로투쟁을 강화하고있다.

7월 27일 이 나라 안전부력은 북부지역에 위치한 띠지우주도, 지젤도, 스끼끄다도에서 반테로작전을 벌려 테로분자들이 숨어있던 6개의 은신처를 적발하고 많은 폭탄을 압수하였다 한다.

이에 앞서 26일에도 띠지우주도를 포함한 3개 도들에서 테로분자들이 사용하던 27개의 은신처들을 파괴해버렸다.

【조선중앙통신】

이란에서 과학연구사업

유럽동맹의 기반을 흔드는 3대위기

한때는 지역의 통일적발전을 추동하고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듯 하던 유럽동맹이 지금 심각한 고초를 겪고있다. 채무위기로 기를 펴지 못하고있던 유럽땅에 피난민위기가 겹쳐들었고 그 뒤를 이어 테로위기가 지역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고있다. 여론들은 이를 가리켜 유럽이 직면한 3대위기라고 하고있다. 유럽이 동맹앞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다시 추서느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모지름을 쓰고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왜냐하면 세가지중 어느 하나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때문이다. 3대위기는 서로 병존하면서 유럽동맹의 기반에 계속 균렬을 조성하고있다.

유럽동맹에 닥쳐든 채무위기는 자본주의사회가 안고있는 제도적취약성의 필연적결과였다.

2007년 미국의 주택대부금문제로 발생한 금융위기의 해일은 그후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를 련쇄적으로 강타하기 시작하였다. 유럽땅에도 그 여파가 휩쓸었다.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경제침체에 깊숙이 빠져들었으며 그리스, 이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비롯한 적지 않은 나라들이 채무위기에 부닥치게 되였다. 채무위기에 처한 나라들에서 경제가 계속 하강선을 그었으며 실업자들이 범람하게 되였다. 당국들은 긴축정책의 실시로 위기를 모면해보려 하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근로대중의 생활처지만을 더욱 팽박시켰을뿐이였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나라는 그리스였다. 채무위기를 극복할 전망이 없는것으로 하여 유로사용지대로부터의 탈퇴문제까지 제기되였다. 이 문제는 유로사용지대 붕괴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결국 채무위기는 유럽동맹의 기반을 크게 흔들어놓았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채무위기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있다. 일단 급한 대목은 넘겼다고 하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채무위기라는 그늘이 가셔지지 못하고있다. 최근에는 포르투갈과 에스빠냐의 재정적자가 한도수치를 훨씬 넘어섬으로써 유럽동맹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유럽동맹이 안고있는 또 하나의 큰 문제거리는 피난민들의 대대적인 류입이다. 최근년간 세계의 여러 분쟁지역들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밀려들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륙로와 해상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온 피난민수는 100만명이상에 달하였으며 올해에 5월까지의 기간에만도 19만명계선을 넘어섰다. 유럽동맹나라들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피난민들을 부담시하면서 저저마다 남에게 떠넘기려고 옥신각신하고있다. 국경폐쇄로 자기 울타리를 높이 쌓는 나라들도 있었다.

영국에서는 자국이 피난민이라는 《짐》을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걸머졌다고 하면서 동맹탈퇴까지 주장해나섰다. 그러한 속에 지난 6월 23일 유럽동맹탈퇴와 관련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였다. 개표결과 유럽동맹에서의 탈퇴를 지지해나선 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경제위기를 비롯하여 유럽동맹내부에서 제기되고있는 여러가지 난문제들 특히는 피난민문제와 관련하여 유럽동맹에 대한 미련을 버린 영국이 동맹과 결별을 선언한것이다. 이로써 28개였던 유럽동맹 성원국수가 27개로 줄어들게 된다.

영국의 탈퇴결정으로 유럽동맹안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유럽동맹의 전망에 회의심을 느낀 나라들이 영국의 뒤를 이어 동맹으로부터 탈퇴하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이 점세분석가들의 예측이다. 실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체스꼬 등 여러 나라들에서 유럽동맹탈퇴와 관련한 국민투표를 실시할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영국의 유럽동맹탈퇴이후에 발생하게 될 파동에 대처하기 위해 자기 보따리를 풍겨두는 나라들도 있다. 영국의 유럽동맹탈퇴를 추동한 직접적원인으로 된 피난민위기는 이처럼 심각하다.

채무위기, 피난민위기가 계속되고있는 속에 유럽동맹에 또다시 덮쳐든 테로위기, 이것 역시 유럽동맹이 직면한 난관중의 하나이다.

지난 시기 비교적 안정되였다고 하던 유럽동맹내의 정세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대규모테로사건들로 인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있다. 지난해와 올해 프랑스에서는 《샤를리 에브도》신문사에 대한 테로사건과 빠리련쇄테로사건, 남부휴양도시 니스에서의 대규모테로사건 등이 일어나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그런가하면 벨지끄의 브류셀에서 련쇄폭탄테로사건이 발생하고 도이췰란드의 뮨헨에서 총기란사사건이 터졌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만도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발생한 테로관련범죄건수는 211건으로서 2013년에 비해 59건 늘어났으며 그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유럽이 안전분야에서 위기에 직면해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유럽동맹나라들은 대체로 발전된 경제력과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운운하며 국제무대에서 제노라 하던 나라들이다. 이런 코대높은 서방나라들이 오늘날에 와서 각종 위기에 시달리며 동맹의 존재조차 부지하기 힘들어하고있다.

세계여론들은 유럽의 현실을 놓고 유럽일체화과정이 매우 간고한 력사적시기에 놓여있으며 갖가지 위기와 도전이 끊임없이 나타나는것을 보면 유럽동맹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고 하고있다. 유럽동맹안의 많은 사람들이 《분렬의 유령이 지금 유럽에서 배회하고있다.》, 《유럽은 말그대로 폭풍에 직면해있다.》고 비관하고있다.

유럽각국의 정부들이 이러저러한 해결방도들을 모색하느라 하지만 그것은 배앓이에 고약바르기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 중동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의 내전, 《이슬람교국가》와 같은 각종 테로조직들의 대두가 유럽에 채무위기, 피난민위기, 테로위기를 몰아온 기본동기인것만은 사실이다.

하다면 금융위기는 왜 일어났으며 중동과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사회적불안정과 분렬, 군사적충돌은 어떻게 되여 발생하였는가? 테로조직들은 누가 산생시켰는가?

이 모든 사태발생의 주범은 바로 악의 제국 미국이다.

미국의 지배주의정책을 배격하는것만이 위기의 근원을 뿌리빼는 방도로 된다.

리 철 혁

ㄱ-61126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